



9

스포츠 열풍과 올림픽대회

1

서울 올림픽대회 유치 막전막후

1980년 새로이 들어선 전두환 정부는 '스포츠 공화국'이라고 불릴 만큼 역대 어느 정권보다 체육 부문에 많은 힘을 기울였다. 엘리트 스포츠 육성에 역점을 두는 한편 아시아경기대회와 올림픽대회 준비에도 심혈을 쏟았다.

1980년대 이후 1990년대 초반에 이르는 제5, 6공화국 시기는 정치적으로 극심한 혼란 속에 점차 민주화로 향하던 일대 전환기였다. 그런데 체육만을 놓고 보면 1986년 서울 아시아경기대회와 1988년 서울 올림픽대회를 성공적으로 치르면서 한국의 위상을 한 계단 올려 체육 발전의 기반을 마련한 시기였다.

1980년대 초반 한국 스포츠계가 겪은 가장 큰 변혁은 대한체육회와 가맹경기단체 집행부의 개편이었다. 우선 1980년 조상호 대한체육회 부회장이 회장으로 취임했다. 조 회장은 같은 해 7월 14일 소집된 임시대의원총회에서 제26대 회장으로 선임됐는데, 그의 취임과 함께 대한체육회와 대한올림픽위원회 집행부를 당시 문교부와 체육회가 마련한 기준에 따라 개편했다.

특히 가맹단체의 집행부 개편 과정에서 33개 회원단체 가운데 18개 경기단체의 회장이 바뀌었다. 정치인 출신 회장들이 모두 물러나고 대기업 경영자들이



◀ 장익용 제18대 대한육상경기연맹 회장.
▶ 제19대 대한육상경기연맹 회장을 지냈고 현재 국제육상경기연맹 집행이사인 박정기.

새 회장으로 추대된 것이 개편의 핵심이었다. 그리고 이는 1980년대를 관통하는 체육계의 새로운 흐름이자 대세가 됐다.

대한육상경기연맹에서도 이에 따라 1980년 9월 제18대 회장에 기업인 출신 장익용이 취임했다. 그는 1983~1987년까지 아시아육상경기연맹 부회장을 지냈다. 역시 기업인 출신으로 대한육상경기연맹 제19대 회장을 지낸 박정기 현 국제육상경기연맹IAAF 집행이사는 이 시기 각 경기단체에 기업인 회장의 등장을 두고 "체육 발전의 계기가 됐다."고 회고했다.

"당시 정부는 아시아경기대회와 올림픽대회를 앞두고 빠른 시일 안에 국위를 선양하는 것에 적잖은 신경을 기울였는데, 그래서 생각해낸 것이 경영자에게 경기단체를 맡기는 것이었어요. 어느 기업은 수영, 어디는 육상경기, 이런 식으로 맡긴 거죠. 무엇보다 스포츠가 가장 빨리 국위를 선양하는 방법이었고 그것을 기업이 가장 잘 수행하리라 기대한 겁니다. 어쨌든 스포츠 발전 측면에서만 볼 때 잘한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1982년에 들어서자 1986년 서울 아시아경기대회와 1988년 서울 올림픽대회



1979년 10월 8일 세종문화회관에서 정상천 서울시장이 서울 올림픽대회 유치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준비가 본격화되었다. 우선 서울 올림픽대회 조직위원회가 정식으로 출범해 업무에 들어갔다. 이와 함께 올림픽대회 준비사업과 서울 올림픽대회를 계기로 한 스포츠 중흥사업을 강력히 추진하기 위해 체육청소년부가 정부부처 기구로 창설됐다.

여기서 서울 올림픽대회 유치의 막전막후를 들여다 보자.⁰⁰¹ 흔히 서울 올림픽대회 유치는 제5공화국에서 처음 시작된 것으로 알고 있는 이들이 많다. 그러나 서울 올림픽대회를 처음으로 구상한 사람은 제3, 4공화국에서 대통령 경호실장

⁰⁰¹ 손정목, 서울 도시계획 이야기 5, 한울, 2009년, 1. 서울 올림픽대회 개최지 결정까지 ; 이동현, 이슈로 본 한국 현대사, 민연, 2002년, 10장. 88 서울 올림픽 비사; 이병도, '정주영과 88 올림픽 유치 비화', 일요신문 2002년 9월 29일자 등 참조.

으로 막강한 권력을 휘두른 박종규다. 그는 1974년 8·15 기념식 행사에서 대통령 부인 육영수 여사의 피격을 막지 못한 책임을 지고 경호실장직을 차지철에게 물려줬다.

1979년 2월 15일 박종규는 제25대 대한체육회장 겸 KOC 위원장에 취임했다. 그는 '피스톨 박'으로 통할 만큼 명사수로 그 별명답게 1970~1984년 15년간 대한사격연맹 회장을 지냈다.

그는 대한체육회장 취임 당시부터 올림픽대회를 유치하겠다는 꿈을 품었다. 12년 전 마땅한 체육시설을 갖추지 못해 제6회 아시아경기대회를 반납하는 치욕을 겪어야 했던 체육계로선 꿈도 꾸지 못할 일이었다. 1979년 3월 16일 박종규는 '88 서울 올림픽 유치 정부지침 요청서'를 문교부 장관에게 제출했다.

그해 8월 3일 문교부는 이 요청서를 국민체육진흥심의회에 제출했고 이 위원회는 7인 소위원회를 구성해 구체적인 검토에 들어갔다. 그리고 8월 22일, 7인 소위원회 위원장이던 부총리 신현확은 "올림픽대회를 위해 대부분의 시설이 준비될 수 있다면 1986년에 열릴 제10회 아시아경기대회도 서울에서 개최하자."고 한 걸음 더 나아갔다. 7인 위원 전원은 이에 찬성했다.

그로부터 한 달이 지난 9월 21일 마침내 박정희 대통령은 올림픽대회 유치 계획 발표를 지시했다. "한국의 경제 발전상과 국력 과시, 한국 체육의 국제적 지위 향상, 스포츠를 통한 국민 일체감 제고를 올림픽대회 유치 목적으로 정하라."는 것이었다. 10월 8일 정상천 서울시장은 세종문화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올림픽 유치 발표문을 낭독했다.

이 자리에는 내외신 기자 100여 명이 모여 취재 열기가 뜨거웠고 체육계와 경제계 주요 인사들도 두루 배석해 분위기를 한껏 고조시켰다. 12년 전 상황을 돌이켜 보면 실로 격세지감^{隔世之感}이 아닐 수 없었다. 하지만 올림픽대회 유치 발표로 들떴던 분위기는 예상치 못했던 사건으로 인해 이내 사그라지고 말았다.

1979년 10월 26일 중앙정보부장 김재규가 박정희 대통령을 시해하는 사태가

발생했기 때문이다. 올림픽대회 유치의 가장 큰 추진력을 잃은 상황에서 이 일은 유야무야되었다. 신군부가 12·12 쿠데타로 집권한 뒤 그 소용돌이 속에서 생활하던 국민 대다수에게 올림픽은 관심 밖의 일이었다.

정권 교체 후 적극적인 올림픽대회 유치 활동

올림픽대회 유치에 대한 체육계 내부의 의견이 엇갈린 가운데 1980년 7월 14일 제26대 대한체육회장에 취임한 조상호는 올림픽대회 유치 활동을 적극 펴야 한다는 의견을 견지했다. 그러는 동안 11월 5일 IOC로부터 '1988년 올림픽대회 유치 신청 마감일이 11월 30일이어서 그때까지 통보를 기다린다.'는 통지가 왔다. KOC는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대신 "유치 신청서만이라도 제출해 놓고 보자."는 것으로 의견을 모아 문교부에 이를 전달했다. 그런데 유치 도시 후보인 서울시가 올림픽대회를 유치할 수 없다고 반대 의견을 냈다. 서울시는 "시가 당면한 경제적, 재정적 여건을 감안할 때 필요한 제반 시설이 도저히 구비될 수 없어 1988년 제24회 서울 올림픽대회를 유치할 수 없음을 통보한다."는 공문을 KOC와 문교부에 보냈다. 올림픽대회 유치 신청 마감 3일 전의 일이었다. 이를 뒤인 11월 29일 문교부 장관의 보고를 접한 전두환 대통령은 이렇게 말했다.

"전임 박정희 대통령이 결심한 사안을 특별한 이유 없이 변경할 수 없다. 그 뿐만 아니라 이 역사적인 사업을 추진해 보지도 않고 처음부터 패배의식 속에서 물러서선 안 된다."

1980년 12월 초 제24회 올림픽대회를 열고 싶다는 의사를 통보한 도시는 서울, 나고야(일본), 멜버른(호주), 아테네(그리스) 등 4곳. 이 가운데 아테네는 영구 개최지로 결정해 달라는 희망을 걸었다.

12월 15일 IOC는 이들 4개 도시에 151쪽에 이르는 방대한 설문을 보내 다음



한국의 올림픽대회 유치 대표단이 1981년 9월 30일 서독 바덴바덴에서 열린 IOC 총회에서 서울이 1988년 대회 개최지로 결정되자 환호하고 있다.

해 2월 말까지 제출해 달라고 통보했다. 설문은 올림픽대회 유치 경위, 신청 도시와 국가 소개, 대회 운영 방침, 신청 도시가 부담할 조건, 경기장 사정, 종목별 국제경기연맹의 설문 등으로 아주 상세했다. 이에 우리의 기본 설문 답변서와 경기 기술 답변서 등이 마무리된 시점은 12월 24일. 이 과정에서 재정적 측면의 논의는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올림픽대회 유치에 여전히 소극적이던 서울시는 급기야 답변서를 제출하면서 함께 보내야 하는 개최 신청금 10만 스위스 프랑을 내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중앙 정부가 부담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그러자 국무총리 행정조정실이 서울시 일반회계 예비비에서 10만 스위스 프랑을 인출하도록 개입했다. 이런 상황 끝에 1981년 2월 26일 스위스 로잔에 답변서와 신청금을 제출했다. 2월 28일 마

감 시한까지 IOC가 제시한 서류를 낸 곳은 서울과 나고야 두 곳이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심각한 문제가 불거졌다. 바로 돈 문제였다.

1979년 KOC가 정부에 제출한 유치 계획서에 나타난 직접경비는 2500억 원. 하지만 국제경기연맹이 요구하는 시설 계획에 맞춰 경비를 산정해 보니 6200억 원이었다. 서울시가 환경 정비 등으로 써야 할 간접경비가 1조 원에 이르는 계산도 나왔다. 사정이 이렇게 되자 모든 것을 원점에서 재검토하자는 의견이 나올 수밖에 없었다.

서둘러 남덕우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8인의 올림픽대회유치추진위원회가 꾸려졌다. 1981년 4월 16일 1차 회의가 열렸다. 논의 대상은 △유치 신청 경위와 소요 경비 △공산권 반대로 인한 어려움 △포기보다는 일본 측 요청으로 한국이 철회하는 방안 등이었다.

4월 27일 2차 회의가 열리고 일본의 치밀한 유치 활동이 소개되면서 ‘명분 있는 후퇴론’으로 의견이 모아졌다. 그 내용은 ‘일본에 밀사를 파견해 일본이 한국의 86 아시아경기대회 개최를 지원하고 88 올림픽대회는 일본에 양보한다. 그리고 한국이 마지못해 양보한다는 태도를 보이자.’는 것이었다.

밀사 노릇은 김집 KOC 상임위원에게 맡겨졌다. 일본의 반응은 냉담했다. ‘일본은 이미 세계 각국 체육계와 긴밀한 교섭이 진행 중이어서 나고야의 88 올림픽대회 유치는 사실상 확실하다. 또 86 아시아경기대회의 서울 개최 지원도 약속할 수 없다. 중국이 유치 의사를 밝힐지도 모르기에 일본은 중립적이어야 한다.’

일본은 1977년부터 나고야에 올림픽대회를 유치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이래 치밀한 유치 운동을 펼쳐 왔다. 우리보다 시기도 앞섰고 국력도 비교할 수 없었다. 일본은 막강한 경제력으로 재계 인사들이 앞장서 아시아, 아프리카, 남미 등의 IOC 및 각종 국제경기단체 위원들을 공략했다.

그 결과 상당수 위원들이 나고야 지지로 돌아선 상태였다. 그런 만큼 일본으로선 올림픽대회 유치 경쟁에서 서울에 진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다.

5월 16일 대책회의가 열렸다. 회의 분위기는 비장했다. 일본이 벽찬 상대지만 국가 체면을 생각해서라도 더는 물러설 곳이 없었다. 회의 결론은 이랬다.

‘1970년 아시아경기대회를 반납했던 전례 등을 감안해 명분 없이 올림픽대회 신청을 또 포기하면 체육계뿐 아니라 일반 외교에서도 국위 손상이 될 수 있고 국민 사기에도 악영향을 끼칠 것이다. 따라서 IOC 총회에서 표 대결을 하기 직전까지 최선을 다한다.’

1988년 서울 올림픽대회 유치의 꿈 이루다

1981년 8월 10일 외무부가 재외공관을 통해 중간 득표 점검을 했다. 접촉 가능한 IOC 위원 60명 가운데 적극 지지자가 5명, 지지 표명이 16명 그리고 호의적 고려는 15명이었다. 중립과 기타는 23명으로 집계됐다. IOC 위원 총 83명 중 과반수인 42표를 얻어야 하는 상황에서 지지자가 23명이라는 점은 안도감을 갖게 하는 수준이었다.

얼마 뒤 박영수 서울시장, 조상호 KOC 위원장, 정주영 올림픽대회 준비위원장 등 체육·경제계 인사 등 15명으로 구성된 한국 대표단은 결전의 장이 될 서독 바덴바덴 현지로 날아갔다. 실무지원단을 합하면 대표단은 모두 100명에 이르렀다. 대표단이 바덴바덴으로 떠나기 전 박영수 서울시장은 시정연구원 이동에게 회계 책임을 맡겼다. 그는 88 올림픽대회 유치 발표문을 작성한 도시계획 전문가였지만 회계에는 문외한이었다. 난색을 표하는 이동에게 박영수는 이렇게 말했다.

“생각해 보게. 올림픽대회 유치에 실패하고 돌아오는 날 국내 여론은 반드시 그 책임을 추궁하게 될 것이다. 그럼 나와 실무자인 자네가 희생양이 될 것이고, 문제는 현지에서 얼마나 많은 돈을 어떻게 썼느냐에 모아질 것일세. 우리 두 사람이 교도소에 들어가지 않으려면 자네가 경리를 맡아야 하는 거야.”

‘올림픽대회 유치에 실패하면 교도소에 들어갈 수도 있다.’ 이것이 바덴바덴

서울에서 열린 국제육상경기대회

으로 떠나는 대표단의 배수진이였다. 바덴바덴에 도착한 대표단은 현지에 대책 본부 사무실을 꾸리고 매일 아침 평가회의를 소집해 활동 상황을 보고하고 이를 분석한 뒤 당일의 지침을 마련했다.

스포츠를 중심으로 문화, 예술 등 다채로운 내용으로 채워진 한국 전시관은 상대적으로 성의가 없던 일본에 비해 관람객들의 상당한 관심을 끌었다. 그만큼 분위기는 좋았고 올림픽대회 유치에 대한 기대도 높아져 갔다.

이윽고 현지 시각 9월 30일 오후 3시 45분, 한국 시각으로는 밤 11시 45분. 후안 안토니오 사마란치 IOC 위원장이 마이크 앞에 섰다. 우리 대표단 쪽에서 환호성이 터졌다. 서울! 52 대 27로 나고야를 누른 것이다. 이어 두 달이 지나고 1981년 11월 26일 인도 뉴델리에서 열린 아시아경기연맹(AGF, 현 아시아올림픽평의회OCA) 총회에서도 1986년 제10회 아시아경기대회를 서울에서 개최할 것을 만장일치로 결의했다.

1980년 서울 올림픽대회 유치 활동이 본격화되자 국내 스포츠계는 국제 대회에서 입상권에 드는 선수를 육성해야 한다는 큰 과제를 안고 각 종목별 기록 관리에 들어갔다.

5월 제9회 중별육상경기선수권대회 남자 10종경기에서 이채홍이 6848점으로 종전 자신의 기록보다 25점이 높은 한국신기록을 세웠다. 김선화는 여자 원반던지기에서 51m 4를 던져 1974년 백옥자가 세운 50m 58을 6년 만에 깨뜨리며 새로운 '투척 여왕'으로 등극했다.

10월 제61회 전국체육대회에서는 여고 선수들의 활약이 두드러졌다. 여자 100m 허들에서 전옥금이 14초 4로 1973년 우선숙이 세운 한국기록을 0.1초 단축했고, 높이뛰기에서 이길레가 1m 76으로 신은선이 세운 종전 한국기록보다 1cm 더 뛰었다. 그해 소년체전에서는 인천여중 3학년 이영숙이 100m, 200m, 4×100m 릴레이에서 3관왕에 올라 이후 한국 최고의 여자 스프린터 자리를 놓고 선배 모명희와의 경쟁을 예고했다. 또 두 아이의 어머니인 서른 살의 백옥자 선수가 전국체육대회 포환던지기에서 16연패를 한 것도 화제였다. 백 선수는 1965년 여중 3학년 때 제46회 대회에 참가한 이래 한 차례도 우승을 놓치지 않은 대기록을 작



왼쪽부터 인천여중 시절의 이영숙, 1980년 여자 원반던지기에서 백옥자의 기록을 6년 만에 깨뜨리며 새로운 투척 여왕이 된 김선화, 1980년 여자 110m 허들에서 한국신기록을 세운 전옥금, 1980년 남자 500m와 1만m에서 각각 한국신기록을 세운 박경덕.

성했다.

11월 제34회 전국육상경기선수권대회에서 3개의 한국신기록이 나왔다. 박경덕이 남자 5000m에서 14분 5초(중전기록 정봉교 14분 15초 9), 남자 1만m에서 29분 32초 8(중전기록 박원근 29분 38초 6)로 2개의 한국신기록을 세웠고, 김순화는 여자 3000m에서 9분 48초 4로 1975년 권남순이 세운 한국기록을 0.5초 단축했다.

그러나 1980년 한 해를 돌아볼 때 한국 육상경기체는 전반적인 기록 부진에 시달렸다. 더욱이 한국 마라톤의 중흥을 도모하고자 개최한 제1회 세계여자마라톤대회(4월 6일)는 주최 측의 운영 미숙으로 공인기록도 내지 못하는 사태가 벌어졌다. 서울운동장에서 여의도에 이르는 15km에서 안내 잘못으로 선수들이 코스를 이탈하는 등 어이없는 사고가 잇따라 10km까지의 기록으로 순위를 집계해야 했다. 그 해 12년 만에 대학육상경기연맹이 부활했고, 1932년 LA 올림픽대회 마라톤에서 한국인 최초로 6위를 한 김은배가 세상을 떠났다.

서울국제주니어오픈육상경기대회 개최

1981년은 육상경기체에 가시적인 변화와 발전이 이루어졌다. 먼저 3월에 한국 최초로 여자 역전마라톤대회가 개최되었다. 천안에서 열린 제1회 유관순 열사의 거기념 전국여자중고교대항역전경기대회는 8개 구간 20.3km 코스에서 열렸는데 대전체고와 예산고덕여중이 첫 패권의 영예를 안았다. 이 대회는 각종 국제대회에서 여자 마라톤이 정식 종목으로 채택되는 추세에 맞춰 선수 발굴에 의미를 두었다.

4월 육상경기강화훈련단 선수기록평가회 겸 아시아육상경기선수권대회 파견선수 선발대회에서 5개의 한국신기록이 쏟아지며 본격적인 기록 경신이 시작되었다. 남자 1만m에서 박경덕이 29분 13초 7로 자신이 세운 종전기록을 19초 1 단축하며 한국신기록을 세우며 1위를 했고, 박원근도 한국신기록을 세워으나 아깝게 2위에 머물렀다. 여자 100m 허들의 전옥금 14초 2(중전기록 14초 4), 남자 원반던지기의 홍순모 50m 48(중전기록 48m 96), 여자 원반던지기의 김선화 51m 32(중전기록 50m 58), 여자 4×100m 릴레이의 훈련단팀 46초 9(중전기록 47초 4) 등이 모두 한국신기록이었다. 이후로도 홍순모의 기록 경신은 계속돼 1981년 한 해 동안 무려 4차례나 원반던지기 한국신기록을 작성했는데 10월 제35회 전국남녀육상경기선수권대회에서 세운 기록은 50m 72였다.

5월 제1회 종별육상경기선수권대회 1500m에서 김순화가 4분 31초 4로 2년 전 자신이 세운 기록을 0.4초 단축했고 800m에서 김복주가 1분 49초 8로 한국신기록을 작성했다. 김복주는 6월 이탈리아 토리노에서 열린 세계대학생육상경기선수권대회에서 다시 1분 48초 47를 기록해 20여일 만에 한국신기록을 다시 쓰며 은메달을 차지했다.

6월 5일 도쿄에서 시작된 제4회 아시아육상경기선수권대회에서 한국은 부진을 면치 못했다. 아시아의 스프린터로 꼽히는 장재근이 200m에서 21초 30으로 4위를 차지했을 뿐 메달 획득에 실패했고, 대부분의 선수들이 예선에서 탈락하거나

자신의 최고기록에 한참 못 미치는 성적을 내는 데 그쳤다.

그러나 이어진 제4회 멕시코 세계주니어육상경기대회에서 한국선수들은 펄펄 날며 금메달 3개, 은메달 2개를 땀다. 첫날 김종일이 멀리뛰기에서 7m 98(종전기록 7m 71)로 한국기록, 대회기록, 아시아주니어기록을 동시에 경신하며 금메달을 차지했다. 장재근은 남자 100m에서 10초 50으로 금메달을 딴 데 이어 200m에서 20초 19(종전기록 20초 91)로 한국신기록을 작성하며 예선을 통과했고, 결승에서 21초 12로 금메달을 땀다. 김순화는 여자 800m에서 2분 15초 64, 1500m에서 4분 40초 70으로 각각 은메달을 차지했다.

6월 제35회 전국남녀대학육상경기대회 남자 원반던지기에서 홍순모가 50m 14로 한국신기록을 세웠고, 남자 포환던지기에서 이성우가 14m 61(종전기록 14m 55)로 역시 한국신기록을 세웠다. 이어진 제10회 전국중고육상경기대회 여자 높이뛰기에서 김희선이 1m 77로 종전기록을 1cm 경신하며 우승을 했다.

1981년 8월에는 제1회 서울국제주니어오픈육상경기대회가 열렸다. 미국, 캐나다 등 12개국 280여 명의 선수단이 참가한 이 대회는 한국 최초이자 아시아에서도 처음 치러지는 국제육상경기대회였다. 이 대회에서 한국은 금메달 9, 은메달 19, 동메달 12개로 예상 밖의 종합우승을 했다. 2위는 미국, 3위는 케냐였다. '안방 잔치'라는 비난 속에서도 한국신기록이 4개나 나왔다. 여자 4×400m 릴레이에서 전경미·이형미·서다임·배오순이 3분 50초 58로 한국신기록을 세우며 미국에 이어 2위를 했고, 여자 멀리뛰기에서 이순천이 6m 1로 종전기록을 11cm나 경신했다. 남자 110m 허들에서는 송연식이 13초 89로 역시 한국신기록을 세웠다.

또 이 대회를 계기로 서울운동장에 처음으로 100분의 1초까지 측정할 수 있는 경기기록용 사진판독기가 도입되었고, 1~8위까지 기록을 동시에 기록할 수 있는 전광판도 설치되었다. 최신 기계의 도입과 함께 달리기 경기에서 우승 선수가 결승 테이프를 휘감으며 두 손을 치켜들고 환호하는 모습이 사라졌다. 하지만 이 대회가 끝나자마자 기계가 고장 났으나 국내에는 이를 수리할 전문가가 없어 미국으

로 보내졌고 육상경기에 다시 결승 테이프가 등장하는 해프닝도 있었다. 아무튼 서울 국제주니어오픈국제육상경기대회는 5년 뒤 치러질 서울 아시아경기대회를 앞두고 대회 운영 능력을 키우는 발판이 되었다.

여자 마라톤 올림픽대회 정식 종목으로 채택

대한육상경기연맹은 1984년 LA 대회에서부터 여자 마라톤이 정식 올림픽 종목으로 채택되는 등 국제적 추세에 따라 1981년 11월 1일 손기정세계제패기념 제35회 전국마라톤선수권대회에서부터 42.195km를 달리는 여자부 경기를 신설했다. 그 전까지는 1981년 3월 제52회 동아마라톤대회에서 제3회 도쿄 국제여자마라톤 대회 파견선수 선발을 위해 30km를 달린 것이 최장거리였다. 30km 코스에서 우승했던 임은주는 42.195km 코스에서 3시간 16초로 다시 우승을 하며 한국의 첫 여자 마라톤 기록 보유자가 되었다. 당시 마라톤 세계기록은 호주의 앨리슨 로가 세운 2시간 25분 29초.

국제대학스포츠연맹FISU은 1981년 7월 루마니아에서 열리는 하계 유니버시아드 대회부터 처음으로 마라톤 종목을 채택하고, 20km 경보와 여자 400m 허들을 추가했다. 국제육상경기연맹IAAF도 1983년 7월 핀란드 헬싱키에서 열리는 세계육상경기선수권대회에서부터 남녀 마라톤을 경기 종목에 포함시킨다고 발표했다. 또 1981년 10월 열린 제62회 전국체육대회부터 국제육상경기연맹의 규칙 개정에 따라 여자 5종경기가 사라지고 7종경기로 바뀌었다.

1981년 서울 올림픽대회 유치에 성공한 후 올림픽대회 단일 종목으로는 최대의 메달이 걸린 육상경기의 중흥을 위한 한국 스포츠계의 발걸음은 더욱 분주해졌다. 1981년 말, 대한육상경기연맹은 조직을 대폭 개편하는 등 올림픽 체제에 돌입하고 기존 5개년 계획을 7개년 계획으로 수정하여 1986년 아시아경기대회와 1988년 올림픽대회에 대비하기로 했다. 주요 내용은 신인선수발굴위원회 조직, 범국민 달리

기 운동 실시, 우수선수 장학금 지급, 우수선수 발굴자 포상, 코치 아카데미 개설, 해외 전지훈련 강화 등이다.

여자 단거리 모명희, 중장거리 김순화 시대

1986년 서울 아시아경기대회에 이어 1988년 서울 올림픽대회 유치에 성공한 한국 스포츠계의 목표는 대회 운영 능력 향상과 함께 실전에서 메달을 딸 수 있을 만큼 경기 능력을 향상시키는 것이었다. 이때부터 이른바 '올림픽 꿈나무' 발굴과 육성이 본격화되었다. 하지만 1982년 프로야구에 이어 이듬해 프로축구리그가 창설되면서 육상경기와 같은 비인기종목은 대중의 관심으로부터 더욱 멀어질 수밖에 없었다.

이러한 열악한 환경에서도 '버려진 금밭'으로 불리던 육상경기 종목에서 1982년 4월에만 일주일 사이 한국신기록 9개가 쏟아져 그해 연말에 열릴 뉴델리 아시아경기대회에서 메달 획득에 대한 기대감이 고조되었다. 먼저 서울운동장에서 열린 제36회 전국대학대학육상경기대회에서 5개의 한국신기록이 작성되었다. 모명희가 여자 100m에서 11초 5로 7년 전 이은자의 기록을 0.2초 앞당기며 한국신기록을 세운 데 이어, 김순화는 여자 1500m에서 4분 27초 5로 자신의 기록을 2초 46 앞당기며 800m와 3000m까지 3개 종목에서 한국기록 보유자가 됐으며, 여자 높이뛰기에서 김희선은 1m 78로 자신의 기록을 1cm 경신했다. 남자 창던지기에서는 이희성이 72m 60으로 12년 전 박수권이 세운 한국기록 71m 88을 72cm나 능가했으며, 남자 1500m에서 김복주가 황규훈의 한국기록을 7년 만에 1초 02초 단축한 3분 49초 8을 마크하며 50초의 벽을 무너뜨렸다. 이어진 육상경기 시즌오픈 기록대회에서 여자 멀리뛰기 김미숙 6m 5, 여자 100m 허들 전옥금 14초 10, 남자 원반던지기 홍순모 51m, 포환던지기 한민수 14m 88이 모두 한국신기록이었다.



중학교 체육교사로 재직 중인 모명희의 2011년 모습(왼쪽), 1982년 뉴델리 아시아경기대회 200m에서 역주하는 모명희, 경향신문 1983년 12월 21일자 거재 사진.

1982년 5월에도 신기록 행진은 계속되었다. 제37회 종별육상경기선수권대회 겸 아시아경기대회 파견선수 선발전에서 무려 7개의 한국신기록이 나왔다. 여자 400m 허들에서 전경미가 1분 01초(중전기록 성소분 1분 06초 5)로 5년 만에 한국 기록을 다시 썼을 뿐 아니라, 남자 400m 허들에서 오승은이 53초 6을 마크하며 1957년 엄팔용이 세운 53초 8을 25년 만에 깬 것이 단연 화제였다. 그 밖에 남자 100m 허들 송연식 14초 64와 임충희 14초 74(중전기록 송연식 14초 98), 남자 원반던지기 홍순모 51m 80(중전기록 자신이 세운 51m), 남자 창던지기 양은영 74m 48m(중전기록 이희성 71m 88), 여자 7종경기 김순란 4826점(중전기록 자신이 세운 4761점)이 모두 한국신기록이었다.

6월 이탈리아 토리노에서 열린 세계대학생육상경기대회에 참가한 한국대표팀은 남자 800m 김복주와 멀리뛰기 김종일이 각각 동메달을 땀고, 여자 1500m에



김양곤이 1982년 제9회 뉴델리 아시아경기대회 남자 마라톤에서 1위로 들어오고 있다.

참가한 김순화가 4위에 그쳤으나 4분 25초 91로 한국신기록을 세웠다.

8월에 열린 제2회 서울국제주니어오픈육상경기대회에 한국은 금메달 10개, 은메달 11개, 동메달 13개로 미국을 제치고 이 대회 2연패에 성공했다. 10월에 열린 제36회 전국육상경기선수권대회에서도 7개의 한국신기록이 작성되었다. 특히 4×100m 릴레이에서 남녀 대표팀 모두 한국신기록을 작성했다. 전정식·박명숙·이영숙·모명희로 짜인 여자 대표팀은 46초 18로 서울주니어오픈국제육상경기대회에서 나온 한국기록 46초 99를 0.81초 앞당겼고, 김상문·장재근·최용준·서말구로 이어진 남자대표팀은 40초 54를 마크해 1981년 6월 아시아선수권대회에서 한국대표팀이 세운 한국기록 40초 56을 0.02초 앞당겼다.

그 밖에 남자 1500m 염병화 3분 53초 15와 윤진오 3분 54초 05(중전기록 3분



제9회 뉴델리 아시아경기대회 남자 창던지기에서 은메달을 딴 양은녕의 경기 모습.

54초 48), 여자 100m 허들에서 전정미가 1분 01초 75로 1년 5개월 만에 자신의 기록을 0.41초 단축했고, 7종경기에서는 지정미가 4994점으로 4월 김순란의 기록보다 118점이나 앞서서 한국신기록을 세웠다. 남자 포환던지기 한민수 15m 34(중전기록 14m 91)도 한국신기록을 세웠다.

1982년 뉴델리 아시아경기대회 성과

1982년 대미를 장식한 것은 11월 19일부터 12월 4일까지 인도 뉴델리에서 열린 제19회 아시아경기대회였다. 이 대회는 4년 뒤인 1986년 서울에서 열릴 아시아경기대회의 전초전이였다. 사상 최대 규모인 33개국 4500여 명의 선수가 참가한 가

운데 열린 이 대회에서 한국은 20개 종목에 참가해 금 28개로 일본, 중국에 이어 종합 3위에 올랐다.

특히 이 대회 육상경기 멀리뛰기에서 김종일은 7m 94를 뛰어 1위를 차지했다. 또한 남자 200m에서 장재근이 20초 89의 아시아경기대회 신기록으로 우승했고, 마라톤에서도 김양곤이 2시간 22분 21초로 금메달을 목에 거는 등 예상치 못한 종목에서 금메달 3개를 획득했다. 이와 함께 남자 100m에서 장재근이 10초 72로 은메달을 딴 데 이어, 남자 800m에서 김복주가 1분 47초 55의 한국신기록을 수립하며 은메달을 목에 걸었다.

남자 창던지기의 양은녕도 73m 62의 기록으로 은메달을 차지했다. 이 밖에 남자 1만m의 박원근이 29분 38초 17로 한국신기록을 작성하며 동메달을 땀고, 모명희도 여자 100m에서 11초 99, 여자 200m에서 24초 49로 2개의 동메달을 목에 걸었다. 여자 4×100m 릴레이에서는 전정식·박미선·이영숙·모명희 등 4명의 주자가 46초 27로 한국신기록을 세우며 역시 동메달을 거머쥐었다.

입상권 밖으로 밀려난 종목에서도 한국신기록이 쏟아졌다. 여자 1500m에 참가한 김순화는 4분 26초 58, 멀리뛰기의 김미숙은 6m 3, 높이뛰기의 김희선은 1m81, 400m 허들의 전경미는 61초 93으로 한국신기록을 각각 세웠다. 남자 1500m에 참가한 김복주는 예선에서 3분 52초 98을 찍어 역시 한국신기록의 주인공이 됐다.

세계육상경기선수권대회 창설과 기준기록

1982년 12월 뉴델리 아시아경기대회가 끝난 후 발등에 떨어진 불은 1984년 LA 올림픽대회와 1986년 서울 아시아경기대회였다. 물론 1988년 서울 올림픽대회도 염두에 두지 않을 수 없었다. 각종 국제 대회에 선수를 파견하고 해외 전지훈련을 시키는 등 기록 향상에 주력했다. 하지만 기록을 끌어올리기는커녕 현



1982년 뉴델리 아시아경기대회 멀리뛰기에서 금메달을 딴 김종일. 1986년 아시아경기대회와 1988년 올림픽대회에서도 남자 멀리뛰기 국가대표로 활약했다.

상 유지도 쉽지 않다는 것이 현실로 드러났다.

1983년 1월 세계육상경기선수권대회(제1회 대회 8월 헬싱키에서 열림)가 창설되면서 국제육상경기연맹IAAF에서 각국 선수들의 참가자격을 정한 기준기록을 발표했는데, 한국은 41개 남녀 전 종목이 모두 A그룹에 미달했고 이보다 훨씬 낮은 B그룹조차 8개 종목만 통과하는 것으로 나타나 충격을 주었다. IAAF는 기준기록 A그룹에 도달한 나라는 종목 당 3명씩 참가 자격을 주고, B그룹 해당자만 있을 경우 종목 당 1명만 참가자격을 주기로 했다. 이에 따르면 한국은 B그룹에 해당하는 선수 8명만 대회에 참가할 수 있으며 입상은 꿈도 꾸기 어려웠다. 아시아경기대회 금메달리스트이자 한국 멀리뛰기 1인자인 김종일의 최고기록은 7m 98로 A그룹 8m보다 2cm가 모자라고, B그룹 하한선보다는 28cm가 많았다. 그러나 당시 세계기록은 8m 90으로 한국기록과 1m가량 차이가 나는 상황. 역시 아시아경기대회 200m 금메달리스트인 장재근의 최고기록 20초 89도 B그룹 21초 10보다는 앞서지만 세계기록 19초 72와는 엄청난 격차가 있었다.

세계선수권대회에 이어 LA 올림픽대회 기준기록도 발표됐는데, 이조차 높은 벽을 실감케 했다. 한국은 33개 종목 중 4개 종목만 참가 기준기록을 넘어섰다. 단거리의 장재근과 멀리뛰기 김종일만 예선 통과가 가능하다는 비관적인 전망

이 나왔다. 당시 언론은 한국의 세단뛰기 기록이 42년째 깨지지 않고 있으며, 나머지 종목에서도 광복 이후 처음으로(1982년) 24개 종목에서 75개의 한국신 기록이 양산됐음에도 올림픽 기준기록에는 한참 뒤쳐져 있다고 한탄했다.

1986년 아시아경기대회와 1988년 올림픽대회 개최 예정국으로서 체면을 세우려면 육상경기 종목에서 반드시 메달 획득이 필요했지만, 기록을 단숨에 끌어 올리는 것은 거의 불가능했고 어린 선수를 발굴하고 육성해야 한다는 데 육상경기인들은 한목소리를 냈다. 이때부터 육상경기 유망주들 앞에는 '88 꿈나무'라는 수식어가 붙기 시작했다.

한편 1983년 3월 12일 일본 나고야에서 열린 국제실내육상경기대회에서 김복주가 800m에서 1분 55초 70의 기록으로 은메달을 획득했다. 1위를 한 미국의 제임스 로빈슨의 기록에 0.55초 뒤지는 좋은 기록이어서 한국에 한 줄기 희망이 되었다.

1983년 4월 9, 10일 이틀간 시즌오픈 육상경기기록회가 열려 5개의 한국신 기록이 나왔다. 그러나 정작 국가대표 선수가 세운 것은 2개뿐이고 나머지는 모두 무명선수들이 작성한 것이어서 국가대표 선수 관리의 부실에 대한 질타가 쏟아졌다. 남자 1500m에서 김복주가 3분 46초 3(종전기록 3분 49초 8)로 한국신 기록을 세웠고, 200m에서 장재근이 21초 00을 기록했으나 자신의 아시아경기 기록 20초 89(전자계시, 수동계시로 할 경우 20초 7)에는 미치지 못했다. 여자 7종경기에서 지정미가 4946점, 남자 400m 허들에서 신예 윤태근이 53초 1(종전기록 1982년 오승은 53초 6)로 각각 한국신기록을 작성했는데, 특히 윤태근은 허들에 입문한 지 1년 만에 이런 성과라 더욱 큰 기대를 모았다. 윤태근은 그 후 6월에 열린 종별육상경기선수권대회에서 또다시 자신의 기록을 돌파했다. 4월 18일에는 제37회 대학대항육상경기대회에서 한국 여자 멀리뛰기 1인자인 김미숙이 6m 6으로 1년 만에 자신의 기록을 경신하며 한국신기록을 수립했다.

1983년 5월 제12회 소년체전에서는 뜻밖의 한국신기록이 나왔다. 충남 성실

여중 2학년인 노혜순이 800m에서 2분 8초 7로 종전기록(1979년 대만 국제초청육상경기대회 김순화 2분 9초 4)을 0.7초 단축한 것. 노혜순은 1500m에서도 대회신기록으로 우승하며 단숨에 육상경기 유망주로 떠올랐다.

그해 6월에 열린 제12회 종별육상경기선수권대회에서는 윤태근이 400m 허들에서 53초 12로 한국신기록을 작성했다. 이는 1982년 오승은이 세운 53초 30을 0.18초 단축한 것. 윤태근은 4월 10일 시즌오픈 경기에서도 수동시계로 53초 1을 기록해 이미 오승은의 기록을 넘어섰다. 송연식도 110m 허들에서 14초 60으로 자신이 세운 14초 64을 깨뜨렸고, 4×400m 릴레이에서는 한국체육대학팀(이중윤·장철·한기홍·김용태)이 3분 14초 58(종전기록 3분 18초 61)로 한국신기록을 세웠다. 100m에서는 성낙군이 10초 41로 1위를 했으나 1979년 서말구가 세운 10초 34를 넘어서는 데는 실패했다.

여자 중장거리 1인자 김순화 14번째 한국신기록 작성

한국기록이 거북이걸음을 하는 동안 세계기록은 나날이 경신되었다. 7월 3일 전미체육대회가 열렸는데 남자 100m에서 미국의 캘빈 스미스가 9초 93, 여자 100m에서 에브린 애스포드가 10초 79로 각각 세계신기록을 수립했다. 7월에는 캐나다 애드먼튼에서 유니버시아드 대회가 열렸는데, 장재근이 100m 1차 예선에서 10초 68을 기록한 데 이어 준준결승에서 10초 62로 계속 자신의 기록을 경신하며 준결선에 올랐다. 그때까지 유니버시아드에서 한국은 1978년 멕시코시티 대회 때 서말구가 최초로 준결선에 오른 것이 전부였다.

8월 초 헬싱키에서 열린 제1회 세계육상경기선수권대회 파견 선수단은 서울 북 대한육상경기연맹 부회장을 단장으로 장재근, 김복주, 모명희가 선발되었다. 당시 이 대회는 150여 개국에서 1500여 명의 선수가 참여해 41개의 금메달을 놓고 경쟁을 벌였다. 또 글로벌 기업들의 스포츠 마케팅전도 치열했는데 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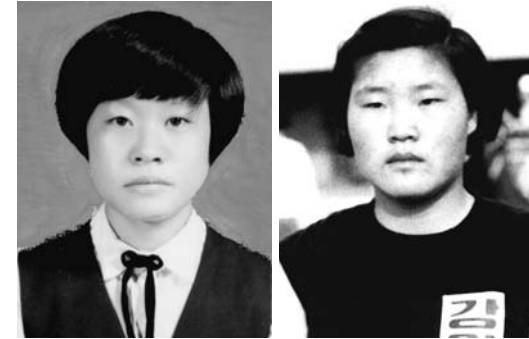


1983년 남자 20km 로드레이스에서 한국신기록을 세운 정만화.

히 아디다스, 나이키, 퓨마 등 스포츠용품 전문 업체들은 우승 선수가 어느 브랜드 제품을 착용했느냐에 따라 희비가 엇갈렸다. 그러나 한국은 200m에 참가한 장재근이 6조 예선에서 21초 39로 7명 중 4위를 하며 1차 예선을 통과한 데 만족해야 했다. 김복주는 남자 800m 예선 6조에서 1분 48초 40으로 6위, 모명희는 여자 100m에서 12초 26으로 역시 6위를 하며 모두 예선에서 탈락했다.

1983년 9월 11일 제37회 전국육상경기선수권대회 마지막 날 한국 여자 중장거리의 1인자 김순화가 14번째 한국신기록을 작성했다. 김순화는 3000m에서는 9분 39초 3으로 3년 전 이 대회에서 자신이 세운 기록을 9초 1이나 단축하며 14번째 한국신기록을 세웠고, 그 전날 1500m에서 4분 24초 99를 마크해 1982년 자신이 세운 기록을 14개월 만에 0.92초 단축했다. 김순화는 중학교 3학년 때 국가대표로 발탁돼 800m, 1500m, 3000m 한국기록을 보유하며 매년 자신의 기록을 경신해 '기록의 화신'으로 불리기도 했다.

10월 인천에서 열린 제64회 전국체육대회부터 한국 스포츠계는 본격적인 서울 올림픽대회(1988년) 준비 체제에 들어갔다. 이 대회부터 1만m 경보가 채택되었다. 이 대회 남자부 20km 로드레이스에서는 치열한 선두 다툼이 벌어지면서 한국신기록이 쏟아졌다. 정만화가 1시간 2분 18초로 우승한 데 이어, 이춘근이 1시간 2분 23초, 오재도가 1시간 2분 29초로 나란히 2,3위를 했는데 3위가



- ▶ 1980년대 한국 중장거리의 1인자로 활약한 김순화의 여고 시절 모습.
- ◀ 1983년 여자 원반던지기 국가대표로 활약한 전화경.

지 기록이 모두 한국신기록이었다. 종전기록은 1982년 박명배가 세운 1시간 2분 59초.

1983년 11월 쿠웨이트에서 열린 제6회 아시아육상경기선수권대회에서 한국은 1개의 금메달도 따지 못하고 은메달 2개, 동메달 9개로 종합 11위에 그쳤다. 박경덕은 남자 1만m에서 자신의 한국최고기록인 29분 13초 7에 훨씬 못 미치는 30분 04초 89로 2위를 했고, 5000m에서는 14분 25초 85(자신의 최고기록 14분 5초)로 3위에 머물렀다. 여자 원반던지기에서 전화경이 47m 20로 은메달을 땀으나 자신의 기록에는 4m 10이나 모자란 기록이었다. 남자 높이뛰기에서는 신이식이 2m 5로 5명의 선수와 동률을 이뤄 결승시기까지 가서 3위를 했다. 여자 높이뛰기에서는 김희선이 자신의 최고기록인 1m 81로 3위, 남자 4×100m 릴레이에서 한국이 40초 60으로 중공, 태국에 이어 3위를 했다. 3000m에서 기대를 모았던 김순화는 북한 선수들에게 1,2위를 내주고 3위에 머물렀고, 여자 포환던지기에서 우현선이 14m 12로 3위를 했다. 그나마 세단뛰기의 박영준이 15m 80으로 자신의 기록 15m 76을 경신하며 3위를 한 것이 기록적으로 의미가 있었다.

아시아육상경기선수권대회가 끝나자마자 방콕에서 타이 초청 국제육상경기대회가 개최되었다. 남자 창던지기에서 양은녕이 66m 58, 여자 포환던지기에



◀ 1984년 오사카국제마라톤대회에서 한국최고기록을 세운 최경자.
▶ 1980년대 여자 마라톤에서 최경자와 기록 경쟁을 벌인 임은주. 1986년 도쿄마라톤대회에서 4위로 들어오는 모습.

서 우현선이 13m 67, 여자 원반던지기에서 전화경이 각각 금메달을 땀고, 남자 110m 허들에서 임충희가 은메달, 여자 멀리뛰기의 황윤숙과 남자 높이뛰기의 신이식이 각각 동메달을 추가했다.

그러나 1983년 말 여자 단거리 스타 모명희의 은퇴 선언으로 육상경기계가 발각 뒤집혔다. 서울대 체육과 3학년에 재학 중이던 모명희는 인일여고 1학년 때 최연소 국가대표로 선발돼 2학년 때 200m에서 24초 49(수동계시 24초 3)로 한국신기록을 세웠고, 1980년 멕시코 세계주니어선수권대회에서 100m를 11초 96에 주파해 또다시 한국신기록을 세우며 서울대와 고려대가 치열한 스카



◀ 1984년 모명희와 치열한 경쟁을 벌이며 여자 100m 한국신기록을 세운 이영숙.
▲ 1984년 5월 제13회 종별육상경기선수선수권대회에서 이영숙(가운데)이 모명희(맨 왼쪽)를 꺾고 여자 100m에서 한국신기록을 세웠다. 동아일보 1984년 5월 12일 게재 사진.

우트 경쟁을 벌이기도 했다. 대학 입학 후에도 1982년 뉴델리 아시아경기대회 100m, 200m에서 동메달을 획득한 바 있다. 결국 대한육상경기연맹의 간곡한 설득으로 모명희는 국가대표 전지훈련에 참가했다. 한편 이 무렵 100m 한국기록 보유자이자 동아대 육상경기 코치인 서말구가 프로야구 롯데 자이언츠팀 코치로 임명되었다. 육상경기인 최초의 야구계 입문이어서 화제를 모으기도 했다.

육상경기 훈련 보조금 지급 결정

1984년 초 대한육상경기연맹은 종목에 관계없이 한국신기록 수립 선수에게 200만 원의 훈련 보조금을 지급하기로 했는데, 육상경기에서 상급 형태의 보조금이 지급되는 것은 처음이어서 눈길을 모았다. 첫 수혜자는 1월 오사카국제마라톤대회에서 나란히 한국기록을 세운 최경자와 임은주였다. 최경자는 2시간 38분 47초로 9위, 임은주는 2시간 39분 17초로 10위를 했다. 종전 한국 여자 마라톤 최고기록은 1983년 임은주가 해밀턴국제마라톤에서 세운 2시간 39분



◀ 1980년대 중반부터 남자 창던지기에서 여러 차례 한국신기록을 작성한 박종삼.

▶ 1984년 여자 7종경기에서 한국신기록을 세운 지정미.

51초.

5월 LA 올림픽대회를 코앞에 두고 열린 제13회 중별육상경기선수권대회에서 한국신기록 6개가 쏟아졌다. 특히 여자 100m에서 이영숙(19)과 모명희(21)가 라이벌 구도를 형성하면서 기록을 단축한 것이 단연 화제. 이영숙이 11초 92로 종전 모명희가 세운 11초 96의 기록을 깨뜨렸을 뿐만 아니라 모명희도 11초 93으로 자신의 기록을 돌파해서 이 대회에서 여자 100m에서만 2개의 한국신기록이 나왔다. 모명희는 100m에서 1위를 놓친 것에 대한 명예회복이라도 하듯 200m에서 24초 37로 자신이 1979년 제3회 아시아육상경기선수권대회에서 세운 기록을 0.12초 단축하며 한국신기록을 세웠다. 그 밖에 남자 포환던지기에서 경력 8년차인 한민수가 15m 53으로 자신이 세운 종전기록보다 19cm를 더 던졌고, 남자 1500m에서는 22세의 권영조가 주종목을 장거리에서 중장거리로 바꾸어 3분 52초 76으로 한국신기록을 수립했다. 이 기록은 1982년 김복주가 세운 기록을 0.2초 단축한 것이었다. 또 여자 7종경기에서 지정미가 5129점으로 자신의 세 번째 한국신기록을 수립했다.

이영숙은 같은 해 7월 LA 올림픽대회 출전 29개국 육상경기대회에서 100m를 11초 90에 주파해 한국신기록을 다시 썼고, 지정미도 10월 제65회 전국체육대회 여자 7종경기에서 5160점으로 한 해에 두 번 한국신기록을 작성하며 맹활

약을 했다.

1984년 8월에 열린 제3회 서울국제주니어오픈육상경기대회에는 미국·독일 등 17개국에서 185명의 선수들이 참가해 30개 종목에서 자웅을 겨뤘다. 그러나 한국은 남자 창던지기에서 박종삼이 74m 76(종전기록 74m 48)로 한국신기록을 세우며 1위를 한 것이 유일한 금메달이었다. 여자 4×400m 릴레이에서 한국팀은 3분 49초 71로 종전기록을 0.87초 단축하는 데 성공했으나 은메달에 만족해야 했다. 이 대회에서 한국은 종합순위 8위에 그쳤다.

8월 아시아 12개국이 참가한 가운데 열린 제46회 싱가포르국제육상경기대회에서 한국팀은 남자 200m 김상문 21초 5, 남자 1만m 윤찬기 31분 20초 5, 여자 포환던지기 우현선 13m 16 등 3개의 금메달을 따는 데 성공했다. 11월에 열린 제38회 전국육상경기선수권대회 여자 원반던지기에서 김선화가 51m 64를 던져 자신이 세운 종전기록보다 30cm 앞선 한국신기록을 작성했다.

3

최고의 성과 거둔 서울 아시아경기대회

1984년 제23회 LA 올림픽대회는 소련과 동유럽 국가들이 불참해 4년 전 모스크바 올림픽대회와 마찬가지로 반쪽 올림픽대회라는 불명예를 안았다. 이에 따른 반사이익이 있었지만 한국은 이 대회에서 금메달 6개, 은메달 6개, 동메달 7개로 종합 10위에 오르면서 광복 후 첫 참가한 1948년 런던 올림픽대회 이래 사상 최고의 성적을 냈다.⁰⁰³

하지만 육상경기는 여전히 세계의 높은 벽을 실감해야 했다. 장재근, 모명희 등 13명의 선수를 파견했지만, 멀리뛰기에서 김종일이 7m 86으로 필드 종목 사상 처음으로 입상권(8위)에 진입했고 3000m 장애물에서 김주용이 8분 43초 50의 한국신기록을 작성하는 데 만족해야 했다.

1984년 잠실종합운동장 메인스타디움이 7년 만에 완공되었다. 1986년 아시아경기대회와 1988년 올림픽대회가 치러질 이곳에서 9월 29일 개장식과 함께

⁰⁰³ 한국이 1948년 런던 올림픽대회에서부터 1976년 몬트리올 올림픽대회까지 28년 간 8차례의 올림픽대회에서 획득한 메달은 모두 18개(금 1, 은 6, 동 11)였다.

- ▶ 1984년 남자 400m 허들에서 한국신기록을 세운 정한주.
- ◀ 1984년 남자 10종경기에서 한국신기록을 세운 박현권.



국제육상경기대회와 국제축구대회가 열렸다. 우수선수 초청 형식으로 열린 국제육상경기대회는 29개국에서 102명의 선수가 참가했으나 기록 자체는 부진했다. 한국팀은 남자 창던지기에서 박종삼이 76m 86(종전기록 74m 76)으로 한국신기록을 세웠으나 5위에 그쳤고, 남자 100m에서 심덕섭이 10초 64로 2위, 남자 멀리뛰기에서 김종일이 7m 78로 2위를 한 것이 최고 성적이었다. 이 대회 후 김종일은 대한육상경기연맹의 후원으로 미국 유학길에 올라 워싱턴주립대학에서 2년간 훈련과 육상경기 이론을 공부했다.

세단뛰기 박영준 43년 만에 한국신기록

LA 올림픽대회의 열기가 국내 스포츠계로도 이어졌는지 10월 제65회 전국체육대회에서 12개의 한국신기록이 쏟아졌다. 특히 세단뛰기에서 박영준이 15m 89로 무려 43년 만에 한국신기록을 작성한 것이 최대 수확이었다. 남자 20km 경보에서는 정필화가 1시간 46분 25초(종전기록 1975년 이종하 1시간 48분 9초)로 한국신기록을 세웠는데 이 종목은 1975년 서울 아시아육상선수권대회 이후 처음 실시된 것이었다. 그 밖에 여자 200m 박미선 24초 29(종전기록 24초 37), 여자 7종경기 지정미 5160점(종전기록 5128점), 남자 400m 허들 정한주



◀ 1985년 남자 포환던지기에서 한국신기록을 세운 한민수.

▶ 1985년 남자 4x100m에서 한국신기록을 세운 성낙군(왼쪽)과, 심덕섭. 이들은 1980년대 장재근과 함께 남자 100m 국가대표로 활약했다.

52초 50, 오테우 52초 71(종전기록 52초 85), 남자 1500m 이홍식 3분 51초 84(종전기록 3분 52초 76), 남자 10종경기 박현권 6989점(종전기록 6848점), 20km 로드 레이드에서는 남자 김종윤 1시간 41초, 이홍렬 1시간 2분 3초(종전기록 1시간 2분 18초), 여자 최경자 1시간 14분 41초, 유의준 1시간 15분 13초(종전기록 1시간 15분 25초) 등이 모두 한국기록이었다.

11월에는 한 해를 마무리 짓는 제38회 전국육상경기선수권대회가 열려 여자 원반던지기에서 김선화가 51m 64로 종전 자신이 보유하고 있는 한국기록을 34cm나 경신했다.

1985년 1월 대한육상경기연맹 장익용 회장이 4년여 만에 사퇴하고, 한국전력 박정기 사장이 제19대 회장으로 취임해 1996년 12월까지 12년간 회장직을 수행했다. 박 회장 체제에서 대한육상경기연맹은 기록 향상을 유도하기 위해 특별포상제를 도입했다. 1988년 서울 올림픽대회 남자 마라톤에서 2시간 9분 이내의 기록으로 금메달을 딴 선수에게 2억 5500만 원의 포상금과 평생직장을 보장하고, 이 선수를 발굴하고 지도한 코치에게도 9200만 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는 내용. 여기에 2시간 12분 이내의 기록을 세우면 8000만 원, 2시간 13분 이내는

7000만 원 등 차등 지급 조건도 추가했다. 여자 마라톤은 2시간 23분 이내 기록에는 1억5000만 원, 37분 이내 기록은 1000만 원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당시 여자 최고기록은 최경자가 보유한 2시간 38분 47초. 마라톤뿐만 아니라 트랙과 필드의 전 육상경기 종목에서 금메달 1억 원, 은메달, 5000만 원, 동메달 3000만 원을 제시했고, 아시아경기대회는 별도의 포상금 체계를 마련하는 등 획기적인 제안을 했다. 8월 대한육상경기연맹은 자립 기금을 확보하기 위해 한국육상경기진흥회를 설립했다. 그 밖에 코오롱과 함께 전국남녀고교 구간마라톤대회를 주최했고, 대한교육보험과 전국 시도대학 초등학교육상경기대회를 통해 인재 발굴에 나섰다.

이처럼 육상경기에 대한 국내 스포츠계의 기대에 부응하듯 4월에 열린 공인 기록회에서 한국신기록이 쏟아졌다. 남자 창던지기에서 김순운이 77m 48(종전기록 76m 86)을 던진 데 이어, 남자 110m 허들에서 김진태·임충희가 경쟁을 벌이며 3개의 한국신기록을 세웠고, 남자 포환던지기에서 한민수가 16m 11(종전기록 15m 53)로 한국신기록을 세우는 등 무려 13개의 새로운 기록이 작성되었다.

한민수는 2주 뒤 열린 제14회 종별육상경기선수권대회에서도 16m 29로 자신의 기록을 갈아치우며 1982년 이래 6차례나 국내 기록을 경신했다. 세단뛰기 박영준도 공인기록회에서 16m 20으로 한국신기록을 작성했으나 종별육상경기선수권대회에서 4cm를 더 뛰어 16m 24를 기록했다. 종별육상경기선수권대회의 신기록 행진은 계속되었다. 무엇보다 남자 200m에서 장재근이 20초 73으로 아시아신기록을 세운 것이 화제였다. 장재근은 1984년 LA 올림픽대회에서 세계의 높은 벽을 실감한 데다 허벅지 부상 등으로 은퇴를 결심하기도 했다. 그러나 다시 훈련을 시작해 결국 대기록을 세웠다. 이 대회 남자 장대높이뛰기에서는 김명주, 이재복이 나란히 4m 73으로 한국신기록을 작성했다. 1971년 제52회 전국체육대회에서 홍상표가 세운 4m 72를 1cm 경신하는 데 무려 14년이 걸린 것.

여자 100m에서는 2개의 신기록이 나왔다. 박미선이 11초 73, 이영숙이 11초 82로 들어왔는데 이는 2주 전 시즌오픈 공인기록회에서 이영숙이 세운 11초 91을 경신한 것이다. 여자 400m의 최은주도 55초 62를 기록하며 시즌오픈 공인기록회에서 자신이 세운 56초 18을 0.56초 단축하는 데 성공했다.

그 밖에 남자 10종경기 박현권 6861점(종전기록 6775점), 남자 창던지기 김순윤 77m 58(종전기록 77m 48), 남자 110m 허들 김진태 14초 14(종전기록 14초 31), 남자 400m 허들 정한주 52초 23, 여자 멀리뛰기 김미숙 6m 27(종전기록 6m 11) 등 제14회 종별육상경기선수권대회에서는 장재근의 아시아신기록을 포함해 13개의 한국신기록이 나왔다.

장재근 두 번째 아시아신기록을 작성하다

장재근은 1985년 6월 제39회 대학육상경기선수권대회 겸 제14회 중고대학육상경기대회 번외경기에 참가해 심덕섭·성낙균·김상문과 한 팀으로 남자 4×100m 릴레이에서 39초 66(종전기록 40초 54)으로 40초 벽을 무너뜨리며 한국신기록을 세웠다. 또 남녀 400m 허들에서 정한주 51초 18, 강경희 60초 49로 각각 한국신기록이 나왔고, 남자 110m 허들 김진태 14초 4(종전기록 14초 14), 남자 장대높이뛰기 김철균 4m 79(종전기록 4m 73), 여자 창던지기 장선희 50m 86(종전기록 49m 48), 남자 포환던지기 한민수 16m 44(종전기록 16m 29) 등이 모두 한국신기록이었다.

8월 고베 유니버시아드대회에 참가한 장재근은 200m에서 20초 78로 자신의 아시아기록에는 미치지 못했으나 동메달을 따는 데 성공했고, 9월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열린 제6회 아시아육상경기선수권대회 남자 200m 준결승에서 20초 41로 자신의 기록을 0.32초 앞당기며 5개월 만에 다시 한번 아시아신기록을 작성해 생애 최고의 해를 보냈다. 이 대회 세단뛰기에서 박영준도 16m 35로



- ◀ 1940~1950년대 월반던지기 대표 선수로 활약했던 안영환은 1986년 68세에 서울 아시아경기대회 육상경기 총감독을 역임하며 한국이 종합 2위를 하는 데 일조했다.
- ▶ 1980년대 중반 한국 여자 마라톤의 기록 경쟁에 불을 당긴 이미옥.

다시 한국신기록을 작성했다.

이보다 앞서 1985년 8월에 열린 필리핀육상경기선수권대회 20km 경보에서 정필화 1시간 48분 21초, 이교안 1시간 49분 50초로 각각 1,3위를 해, 경보 종목에서 첫 국제대회 메달을 획득했다. 이교안은 10월 제66회 전국체육대회에서 1시간 36분 2초로 종전기록을 11초 앞당기며 한국신기록을 세우기도 했다.

9월에는 잠실 주경기장 개장 기념 국제육상경기대회 겸 서울국제마라톤대회가 열려 LA 올림픽대회 4관왕 칼 루이스와 여자 중장거리계의 여왕으로 불리는 메리 테커 등 해외 유명 선수를 포함해 31개국 312명의 선수단이 서울을 찾았다. 하지만 국제 수준에 한참 못 미치는 저조한 기록으로 인해 예산 낭비라는 비판을 받았다.

10월 제66회 전국체육대회 육상경기 종목에서는 여자 20km에서 이미옥 1시간 14분 39초, 장대높이뛰기 이재복 5m 11 등 2개의 한국신기록이 추가되었다. 그러나 1985년 한 해를 결산하면서 신기록은 풍년이나 내용 면에서 아시아기록에 크게 못 미쳐 '풍요 속의 빈곤'이라는 지적도 나왔다.

한국육상경기진흥 7개년 계획

1986년이 밝았다. 1월 6일 일본 미야자키에서 열린 20km 국제여자단축마라

톤대회에서 한국의 이미옥은 1시간 13분 29초로 자신의 종전기록을 1분 10초 단축했지만 순위는 14위에 머물러 갈 길이 먼 기록경기의 현주소를 보여주었다. 이 대회에서 1위를 한 노르웨이의 기누게백의 기록은 1시간 8분 55초.

1986년은 서울 아시아경기대회가 열리는 해로 대한육상경기연맹은 대회를 한 달 앞둔 8월, 재정 자립과 우수선수 및 지도자 양성을 골자로 한 한국육상경기진흥 7개년 계획을 발표했다. 일단 1958년 설립한 대한육상경기진흥회가 주관하여 1992년까지 50억원의 기금을 확보하기로 하고, 공인코치제도를 도입해 우수 지도자를 양성하며, 각 학교의 육상경기팀 창단을 지원하여 유망주를 발굴한다는 등의 내용이였다. 물론 당면 목표는 마라톤을 필두로 한 한국 육상경기의 진흥, 다시 말해 한국 육상경기가 올림픽대회에서 메달을 획득하는 것이었다. 현실적으로 한국 육상경기의 수준이 세계와의 격차가 상당히 큰 만큼 당시로서는 실현하기 버거운 목표임에 틀림없었다. 이 무렵 1988년 서울 올림픽대회 준비를 위한 서울올림픽조직위원회SLOOC의 활동도 활발했다. 조직위는 1985년 7월 15일 그리스 아테네에서 국제아마추어육상경기연맹IAAF과 서울 올림픽대회 육상경기 일정의 합의서에 서명했다. 이에 따라 조직위는 1984년 봄부터 시작된 총 23개 국제경기연맹과의 서울 올림픽대회 경기 스케줄을 모두 확정했다.

하지만 당장 서울 아시아경기대회에서 좋은 성적을 내는 것이 우선이었다. 대한육상경기연맹은 대회를 앞두고 종목별 기록 향상과 선수 보호에 총력을 기울였다. 1986 아시아경기대회 육상경기에는 총 42개의 금메달이 걸려 있었다. 4년 전 뉴델리 아시아경기대회 육상경기 종목에서 3개의 금메달을 딴 바 있는 한국은 서울 대회에서 금메달 3개를 포함해 은, 동까지 합쳐 총 13개의 메달 획득을 목표로 했다. 그러나 일본과 중국의 강세 속에 기록상 한국의 확실한 금메달 후보는 남자 200m의 장재근뿐이었다.

1986년 4월 25일 국내 최초로 태릉실내육상경기장이 문을 열어 4계절 전천후 연습이 가능해짐으로써 기록 향상에 대한 기대는 더욱 높아졌다. 5월에는 대



▲ 1986년 서울 아시아경기대회 남자 800m에서 역주하는 유태경.

◀ 한국의 스프린터 장재근이 서울 아시아경기대회 남자 200m 결승에서 1위로 들어오며 관중들의 환호에 답하고 있다.

▶ 임춘애가 1986년 서울 아시아경기대회 여자 1500m에서 경쟁 선수들을 뿌리치고 힘차게 달리고 있다.



1986년 여자 100m와 200m에서 잇따라 한국신기록을 작성한 박미선.

한육상경기연맹 산하 한국실업육상경기연맹이 출범했다.

이보다 앞서 4월에는 서울 아시아경기대회의 첫 시험대가 될 제15회 전국중별육상경기선수권대회가 열렸는데, 남자 1만m 경보 일반부에서 정필화가 43분 49초로, 대학부에서 서성희가 44분 4초(중전기록 44분 53초)로 16년 만에 백광용의 기록을 깨고 한국신기록을 작성했다. 또 여자 5000m 경보에서는 이미진 26분 29초 5, 서은숙 29분 29초 5(중전기록 29분 42초 9)로 2개의 한국신기록이 나왔다.

5월 제40회 전국육상경기선수권대회 겸 아시아경기대회 대표선수 선발전이 열렸다. 한국신기록이 13개나 수립됐는데 경보에서만 8개가 나와 눈길을 끌었다. 여자 높이뛰기 김희선 1m 82(중전기록 1m 81), 남자 장대높이뛰기 이재복 5m 12(중전기록 5m 11), 남자 400m 허들 정한주 51초 12와 황홍철 51초 46(중전기록 51초 80), 여자 7종경기 지정미 5116점(중전기록 5049점) 등이고, 남자 경보 20km 정명오가 1시간 31분 16초로 1위를 한 데 이어 3위까지가 한국신기록이었다. 여자 10km 경보에서도 김은실이 51분 57초로 1위를 했고 5위까지가 한국신기록이었다. 하지만 여전히 대부분의 종목이 아시아기록에 크게 뒤져 있어 실망을 감추지 못했다.

6월에 열린 제67회 전국체육대회는 5년간 준비해온 서울 아시아경기대회의



남자 세단뛰기의 박영준은 1987년 제7회 싱가포르 아시아육상경기선수권대회에서 16m 37로 한국신기록을 작성하며 우승했다.

리허설이나 마찬가지로, 21개 종목이 아시아경기가 열릴 경기장에서 치러져 각종 시설과 경기 운영 능력을 점검했다. 그러나 국가대표 선수들은 부상을 우려해 번외경기에만 참가하도록 허락한 가운데 여자 3000m에서 임춘애와 김월자 두 여고선수가 나란히 한국신기록을 작성했다. 특히 임춘애의 9분 21초 99는 국가대표 최은주의 기록보다 14초가량 앞선 것. 임춘애는 4×400m 릴레이에서 김희순·봉재옥·권경자와 함께 경기팀으로 뛰어 3분 49초 31(중전기록 3분 49초 62)로 한국신기록을 세웠고, 여자 10km 로드레이스에서도 우승해 3관왕이 되자 추가로 대표팀에 선발돼 서울 아시아경기대회 3관왕을 예고했다. 또 여자 창던지기 번외경기에 참가한 장선희는 종전 자신의 기록보다 86cm나 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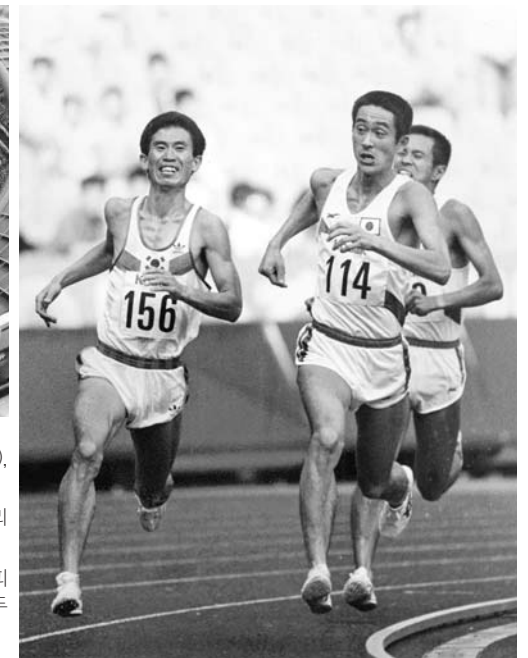
53m 56으로 한국신기록을 작성했고, 여자 7종경기의 지정미도 5118점(종전기
록 5116점)으로 자신의 기록을 깨며 한국신기록을 다시 썼다.

7월 그리스에서 제1회 세계주니어육상경기선수권대회가 열려 한국은 호성
원(남자 100m, 200m), 김원진(멀리뛰기), 김재상(창던지기) 등 3명을 파견했
으나, 김원진이 7m 14로 43명 가운데 5위를 한 것이 최고 성적이었다.

7월 26, 27일 이틀간 열린 제7회 비호기전국육상경기대회 겸 국가대표 최종
기록평가회에서는 환호가 터졌다. 8년째 국가대표로 활약했지만 허리 부상으
로 선수 생명이 끝났다고 알려졌던 박미선이 여자 100m 11초 70, 200m 24초
03으로 잇따라 한국신기록을 수립하며 재기에 성공했다. 이로써 박미선은 장
재근과 함께 서울 아시아경기대회 성화 최종 주자가 되는 행운도 누렸다. 또
1985년 아시아육상경기선수권대회 세단뛰기에서 16m 35의 한국신기록으로
은메달을 딴 박영준이 이 대회 남자 10종경기에서 7322점으로 종전기록에 무
려 318점을 추가하며 한국신기록을 세웠고, 여자 7종경기에서는 지정미가
5272점으로 자신이 세운 한국기록을 한 달 만에 다시 썼다. 여자 높이뛰기 1인
자 김희선도 1m 86으로 한 달 만에 자신의 기록을 4cm 더 높이며 한국신기록
을 세웠다. 임춘애는 여자 1500m에서 4분 19초 85로 종전기록을 5초 14 단축
하며 한국신기록을 작성해 여자 1500m, 3000m, 4×400m 릴레이 등 3종목
한국기록 보유자가 되었다.

1986년 서울 아시아경기대회 최고 스타 임춘애 탄생

마침내 1986년 9월 20일, 제10회 서울 아시아경기대회가 막을 올렸다. 이 대
회에서 한국은 육상경기에서만 금메달 7개, 은메달 5개, 동메달 13개를 획득했
다. 이 대회 최고 스타는 임춘애. 그는 여자 3000m에서 9분 11초 92로 아시아
신기록을 세우면서 금메달을 땀다. 임춘애는 1500m에서도 4분 21초 38로 우승



- ▲ 1986년 서울 아시아경기대회 개막식에서 점화하는 장재근(왼쪽), 박미선 선수.
- ◀ 1986년 잠실 주경기장에서 열린 서울 아시아경기대회 개막식 리허설
- ▶ 1986년 서울 아시아경기대회 남자 5000m 결선에서 김종윤이 피니시라인 200m를 앞두고 일본의 신타쿠와 가나이를 제치고 선두로 나서는 모습.

세 차례나 성별검사를 한 '라면소녀' 임춘애

한국 육상경기의 중·장거리 스타였던 쌍둥이 엄마 임춘애 선수가 최근 한 신문과의 인터뷰에서 23년 만에 충격적인 고백을 했다.⁰⁰⁴ 1986년 서울 아시아경기대회 때 '중성'이라는 소문 때문에 세 차례에 걸쳐 성별검사를 받았다는 것.

임춘애는 1986년 아시아경기대회 당시 800m와 1500m, 3000m 금메달을 차지하며 일약 '국민 영웅'으로 떠올랐다. 깡마른 몸매와 중성적인 이미지가 깊은 인상을 남겼고, '라면소녀'라는 별명이 붙으면서 더욱 화제가 됐다. 올림픽대회나 아시아경기대회에 참가하는 선수들은 기본적으로 성별검사를 하게 돼 있다.

임춘애도 했다. 그런데 800m 예선을 마쳤을 때 알곳은 얘기를 들었다고 한다. 나란히 800m에 참가한 동기가 귓속말로 알려 줬다. "임춘애가 받은 남자, 받은 여자인 중성"이라며 다들 수군대는데, 그런 소문이 나돈다는 사실을 정작 임춘애 자신만 모른다는 것이었다. 임춘애가 가만히 알아보니 그런 말들이 나도는 것은 사실이었다.

임춘애는 곧바로 성별검사를 또 받았다. 결국 여성으로 판정받고 3관왕에 올랐지만 찝찝한 마음은 떨쳐 버릴 수가 없었다. 문제는 거기에 그치지 않았다. 전문가들 눈에도 미심쩍었던 모양이었다. 한 달 쯤 지났을 무렵 한국체육과학연구원에서 임춘애를 불러들였다. 임춘애는 세 번째 검사에서 최종적으로 여성 판정을 받았다. 기본검사 외에 두 차례의 성별 검사는 모두 극비리에 진행됐다.

임춘애는 '라면소녀'에 얽힌 소문도 밝혔다. 아시아경기대회 3관왕이 되고 나서도 신문에서 '17년간 라면만 먹고 운동했다.'는 기사를 쓴 게 발단이었다. 실제로는 삼계탕으로 체력 보충을 했고, 대회 직전에는 코치가 만든 뱀과 개소주까지 먹었다.

라면은 초등학교 때 학교에서 운동부를 지원하자며 전교생에게 라면 1개씩 가져오게 했는데, 그걸 창고에 쌓아 두고 매일 한 개씩 먹었다고 한다. 아마도 이것이 와전돼 임춘애에게 '라면소녀'라는 별명이 붙었으리라. 그녀의 여리고 깡마른 몸매도 '라면소녀'의 소문이 번지는 데 한몫했을 것이다.

⁰⁰⁴ 스포츠조선, 2009년 9월 6일자.



⁰⁰⁴ 박정기 제19대 대한육상경기연맹회장이 바르셀로나 올림픽대회 기념물인 '황영조의 발' 옆에서 포즈를 취하고 있다.

한 데 이어, 800m에서는 2위로 피니시라인에 들어왔다. 그러나 800m 1위인 인도의 쿠리신칼 아브라함이 주로 이탈로 실격하는 바람에 임춘애는 세 번째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이로써 그는 3개 종목을 석권해 일약 아시아 여자 육상경기의 신데렐라로 떠올랐다.

스프린터 장재근은 200m에서 20초 71, 김종일은 멀리뛰기에서 7m 94로 각각 아시아경기대회 2연패를 달성했다. 또 800m에서는 김복주가 국내 최대 경쟁자이자 후배인 유태경을 제치고 금메달을 따냈고, 김종윤은 5000m에서 강력한 우승 후보이던 일본의 신타쿠 마사나리를 밀어내고 금메달을 거머쥐었

다. 한국은 이 대회에서 금메달 93개, 은메달 55개, 동메달 76개로 중국에 이어 종합 2위를 차지했다.

이처럼 가시적인 성과를 거둘 수 있었던 것은 정부의 조직적인 뒷받침이 크게 작용한 덕이었다. 무엇보다 전문 선수를 집중적으로 육성해내는 엘리트 체육 정책 때문이었다. 이와 함께 정부는 올림픽대회, 유니버시아드, 아시아경기대회 등 각종 국제경기에서 메달을 딴 선수에게 점수에 따라 각종 포상금과 연금 혜택을 강화해 경쟁심과 경제적 기대심리를 자극했다.

이런 유인정책은 금메달 만능주의 등 여러 가지 측면에서 후유증을 유발하기도 했다. 그렇지만 스포츠 종목 전반에 걸쳐 경기력 향상과 체육 선진화를 불러온 것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었다.

앞서 언급한 대로 대한육상경기연맹은 아시아경기대회를 앞두고 당시로서는 파격적인 금메달리스트에 대한 5000만 원의 특별포상제를 도입했다. 그런데 왜 하필 5000만 원이었을까. 여기에는 흥미로운 에피소드가 있다. 1985년 회장에 취임하자마자 이 제도를 도입한 박정기 전 회장의 회고다.

“1986년 아시아경기대회를 코앞에 두고 장재근을 빼고는 육상경기에서 금메달 기대주는 사실 없었어요. 물론 육상경기 발전을 위한 중기계획을 짜고 있었지만 당장의 대회에서 성과를 내야 하는 부담도 컸던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속칭 베풀다시피 5000만원 포상금을 들고 나온 겁니다.”

박 전 회장에 따르면 1980년대 당시 서울의 30평형 아파트 시세는 3000만원. 여기에다 생활자금조로 2000만 원을 더해주기로 했다. 그렇게 해서 5000만원이면 단숨에 당시의 중산층으로 진입할 수 있는 액수가 된다는 계산이었다.

다른 경기단체에선 생각조차 하지 못한 육상경기계만의 파격적인 조치였다고 한다. 주위의 우려와 반대가 만만치 않았지만 성과는 대단한 것이었다. 다시 박 전 회장의 말이다.

“육상경기에서만 금메달 7개는 놀랄 만한 성과였어요. 세계는 물론 아시아권

에서도 뒤쳐진 한국 육상경기 아닙니까. 어떤 금메달리스트에게 무슨 심정으로 경기에 임했냐고 물어보니 글썽 아파트만 보였답니다. 허허. 포상제 때문에 그렇게 된 건 아니겠지만 기적 같은 일들이 눈앞에 펼쳐졌으니... 금메달리스트 5명이 자신들 모습을 새겨 만들어준 감사패를 봐도 도무지 믿기지 않은 일이었지요.”

장려금 지급으로 마라톤 중흥 도모

국내에서는 침체된 한국 마라톤을 부흥시키고 전 국민의 마라톤 참여의식을 고취하고자 세계 규모의 마라톤대회가 열렸다. 1982년 KBS와 동아일보가 공동 주최한 제1회 서울국제마라톤대회 겸 제 53회 동아마라톤대회가 그것이다. 이대회는 모두 26개국에서 7427명(초청 선수 76명, 일반 선수 7351명)이 참가한 가운데 여의도를 스타트라인으로 한강변, 잠실대교를 거쳐 서울대교, 여의도에 이르는 코스였다.

이처럼 국제 수준의 마라톤대회가 열려 기록 향상의 자극제가 됐다. 이 대회에서 우리나라는 국개대표 선수들을 뒤로하고 무명의 신인 김종윤이 2시간 16분 58초라는 좋은 기록으로 4위를 하면서 국가대표 선수 훈련 과정의 문제점을 드러냈다.⁰⁰⁴ 서울국제마라톤대회는 이후 마라톤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하는 계기가 됐고 무한한 선수 자원을 확보하고 있다는 잠재력을 입증했다.

전문가들은 이에 마라톤 중흥의 전제 조건은 ‘참여 인구의 증가’ 뿐이라고 역설했다. 한국 마라톤의 중흥을 위한 노력은 1988년 서울 올림픽대회를 준비하

⁰⁰⁴ 김세호 논문, 2006, p45.

는 과정에서 이뤄졌다. 당시 대한육상경기연맹은 올림픽대회에서 상위 입상을 할 수 있는 육상경기 종목은 마라톤이라 생각했다.

그러면서 일본의 마라톤 인재가 고교 역전마라톤대회를 통해 배출되고 있다는 사실에 주목하고, 1982년 4월 25일 제1회 전국고교구간마라톤대회를 올림픽 마라톤대회의 거리와 같은 42.195km에서 실시해 고교 장거리 선수 육성에 노력을 기울였다. 훗날 이 대회를 통해 황영조, 김완기, 이봉주 등 한국 마라톤의 트로이카가 배출됐다.⁰⁰⁵

1981년 코오롱그룹의 이동찬 회장과 대한육상경기연맹 장익용 회장은 마라톤 중흥을 위해 마라톤 연구 장려금 지급 제도를 마련했다. 14분대에 진입하면 5000만 원을, 9분대에 진입하면 1억 원이라는 거액의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이것이 자극제가 됐던지 2시간 20분대에 머물던 기록은 1982년 3월 서울국제마라톤대회에서 김종윤이 2시간 16분 58초를 기록하며 가능성을 보였다.

해를 넘겨 1983년 3월 제54회 동아마라톤대회에서 채홍락이 2시간 16분 33초로 우승해 15분대에 바짝 다가갔다. 이어 1984년 3월 18일, 제 55회 동아마라톤에서 이홍렬이 10년 숙원이던 '마의 15분 벽'을 무너뜨렸다. 2시간 14분 59초, 이홍렬은 마라톤 첫 장려금 5000만 원의 수혜자가 됐고 400여만 원의 후원금까지 받는 행운을 누렸다.

1985년 13분대 기록에 다시 7000만 원의 장려금이 걸렸다. 11분대의 일본을 따라잡기는 그만쯤 힘겨웠다. 갈 길은 먼데 쉬어 가는 한국 마라톤, 서울 아시아경기대회를 1년 앞두고 마음만 다급해졌다. 1985년 제56회 동아라톤에서는 유재성이 혼신의 힘을 다해 역주했으나 50초 차로 아깝게 기록 경신에 실패했다.

⁰⁰⁵ 김세호 논문, 2006, p46.



⁰⁰⁶ 1986년 58회 동아마라톤에서 38km 지점까지 치열한 선두다툼을 벌이고 있는 유재성, 정만화, 반영만(앞에서부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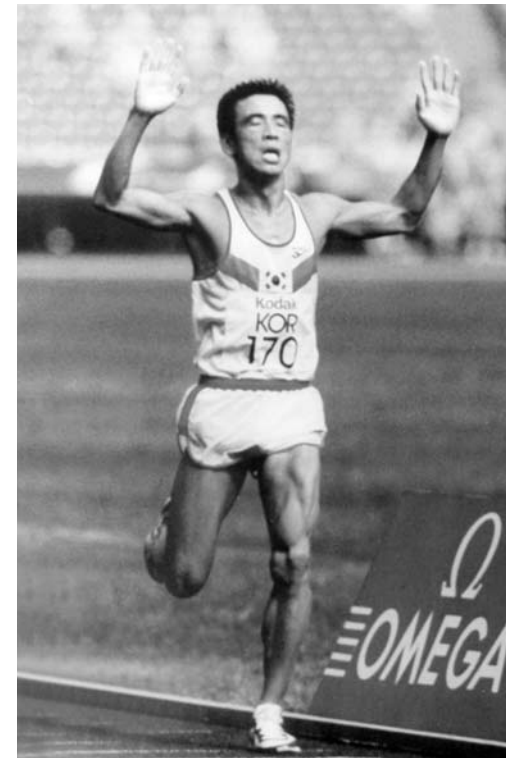
우승 기록은 2시간 15분 48초.

1986년 서울 아시아경기대회를 앞둔 봄 제57회 동아마라톤에서는 무한한 잠재력을 확인할 수 있는 기록이 쏟아졌다. 3위까지 2시간 14분대의 한국 신기록이 수립됐다. 선봉장은 바로 유재성이었다. 그는 2시간 14분 06초로 이홍렬의 종전기록을 53초 단축하고 우승하는 기염을 토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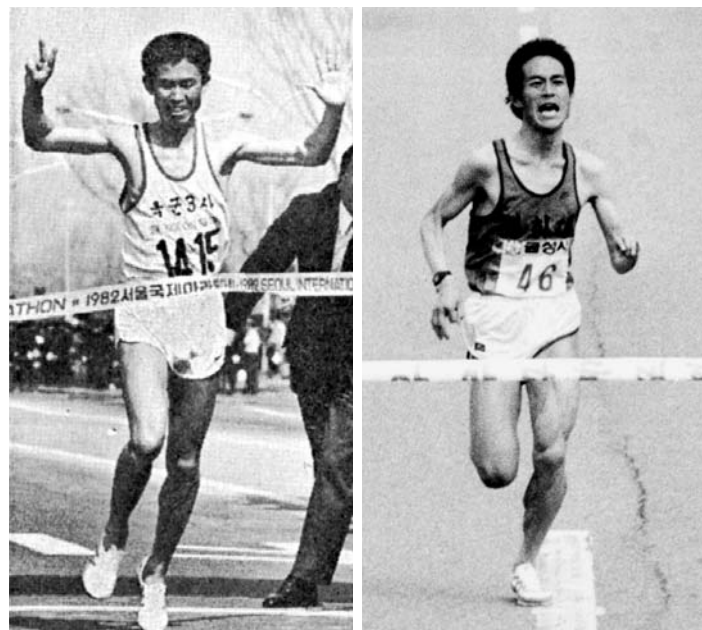
유재성이 7초 차로 13분대 진입에 실패했지만 5위까지 15분대를 기록할 만큼 선수층이 두꺼워졌다. 세계가 7분대를 달리는 상황에서 14분대에 만족할 일은 아니었다. 하지만 유재성의 경우 12분대까지 해볼 만하다는 평가가 나왔다.



1983년 제54회 동아마라톤에서 1위를 한 채홍락(2시간 16분 33초), 2위 조재룡(2시간19분30초), 3위 김주룡(2시간 20분 54초), 맨 오른쪽이 김종윤, 맨 왼쪽은 함홍근.



유재성은 1986년 서울 아시아경기대회를 앞두고 열린 제57회 동아마라톤에서 2시간 14분 06초로 이홍렬의 종전기록을 53초 단축하고 우승했다.



1982년 서울국제마라톤대회에서 2시간 16분 58초로 4위를 한 김종윤. 이 기록은 1974년 문흥주가 세운 2시간 16분 16초에 43초 뒤지는 것으로, 그동안 한국 마라톤의 침체를 말해주는 것이기도 하다. 동아일보 1982년 3월 29일자 게재 사진.
1984년 제55회 동아마라톤에서 '마의 15분 벽'을 깨뜨리는 데 성공한 이홍렬의 피니시라인 통과 모습.

서울 아시아경기대회 성화는 꺼지고

한국이 서울 아시아경기대회에서 종합 2위라는 기대 이상의 성적을 거둔 뒤, 1986년 10월에 열린 제40회 전국대학대학육상경기대회 남자 창던지기에서 이육중이 75m 40(종전기록 74m 44)로 한국신기록을 수립했다. 11월 30일에는 국제육상경기연맹이 공인한 최초의 역전마라톤인 제1회 세계역전마라톤대회가 일본 히로시마에서 열렸다. 이 대회는 마라톤 코스 42.195km를 남자는 5개 구간, 여자는 6개 구간으로 각각 5, 6명의 선수가 나누어 뛰는 방식으로 한국은 단일팀을 구성하지 못하고 '아시아선발팀(한국, 중국,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서울 올림픽대회를 향하여



◀ 1986년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열린 제1회 아시아주니어육상경기선수권대회 남자 창던지기에서 75m 40으로 한국타이기록을 세운 김재상.

▶ 1986년 제1회 아시아주니어육상경기선수권대회 여자 800m에서 금메달을 딴 노혜순.

인도)으로 김종윤(남)과 최은주(여)를 파견했으나 남녀 모두 최하위에 머물렀다. 애초 남북한이 한팀을 구성하기로 했으나 북한이 끝내 불참했다.

1986년 12월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제1회 아시아주니어육상경기선수권대회가 열렸다. 이 대회에는 북한도 참가해 남북 대결에 관심이 모아졌는데 한국은 남자 창던지기 김재상 75m 40(한국타이기록), 여자 800m 노혜순 2분 09초 87, 여자 원반던지기 김미숙 45m 14, 여자 포환던지기에서 최미선 14m 61 등 한국 대표팀은 금메달 4개, 은메달 4개, 동메달 6개를 얻었으나 종합순위는 중공, 일본, 대만, 북한에 이어 5위에 그쳤다.

1987년 한국 체육계의 모든 역량은 1988년 서울 올림픽 대회에 맞춰졌다. 그러나 금메달 42개(남자 24개, 여자 18개)가 걸린 육상경기 종목에서 올림픽 기준기록을 넘는 한국 선수는 남자 장재근(100m, 200m), 심덕섭(100m), 김종일(멀리뛰기)과 여자 김희선(높이뛰기) 등 4명뿐이었다. 올림픽대회 육상경기는 종목별로 한 국가당 1명씩 참가할 수 있으나, 기준기록을 넘어서는 선수는 엔트리에 관계없이 한 국가당 2명까지 참가를 허용했다. 서울 올림픽대회 기준기록은 1986년 8월 독일 슈투트가르트에서 열린 국제육상경기연맹 총회에서 결정되었다.

기준기록이라는 높은 벽에 부딪히자 한국 육상경기는 1988년 올림픽대회보다 1990년 치러질 베이징 아시아경기대회를 목표로 신인을 발굴하는 게 현실적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남자 200m 아시아기록 보유자인 장재근이 서울 올림픽대회를 끝으로 은퇴하면 그 뒤를 이을 스프린터가 없다는 고민도 이런 주장에 힘을 실었다. 장재근과 함께 국내 단거리를 주도해온 심덕섭, 성낙군도 이미 20대 후반으로 은퇴를 고려해야 할 나이였다. 마라톤도 일본에 10년 이상 뒤졌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는 가운데, 1986년 말 기준으로 유재성의 기록 2시간 14분

06초는 남자 486위에 머물렀다.

1987년 1월 첫 원정경기는 일본 오사카에서 열린 요리우리 국제실내육상경기 대회였다. 여자 높이뛰기에서 김희선이 1m 88로 은메달을 딴 것이 최고 수확이었다. 남자 멀리뛰기의 김종일은 자신의 최고기록 7m 98에 훨씬 못 미치는 7m 56으로 3위에 머물렀다. 이 대회 남자 60m에서 캐나다의 벤 존슨이 종전 자신의 기록을 0.06초 단축한 6초 44로 세계신기록을 세웠다. 국제육상경기연맹은 이 대회부터 실내대회 기록도 세계기록으로 공인하기로 했다.

한국에서도 3월 태릉 실내육상경기장에서 첫 공식 전국실내육상경기선수권 대회가 열렸다. 전국 규모 대회 8위 이내 입상자로 참가를 제한하고 남녀 22개 종목의 경기가 열렸는데, 60m에서 호성원이 6초 63의 좋은 기록으로 1위를 하며 국내에도 실내육상경기 시대를 열었다.

1987년 4월 제16회 중별육상경기선수권대회 여자 5000m 경보에서 여고부 박현주 25분 05초, 여대부 김은실 25분 49초 45(종전기록 26분 04초 5)로 모두 한국신기록을 추가했고, 여자 높이뛰기에서 김희선이 1m 90을 기록하는 등 4개의 한국신기록이 나왔다.

남자 장대높이뛰기 이재복과 김철균

1987년 5월 제41회 전국육상경기선수권대회에서 경보에서만 6개를 포함해 모두 7개의 한국신기록이 나왔다. 남자 20km 경보에서 정필화가 1시간 29분 55초 21, 여자 10km 경보에서 박현주가 50분 28초 6으로 각각 1위를 했을 뿐 아니라 남녀 3위까지가 모두 한국신기록이었다. 또 여자 400m에서 최은주가 55초 08로 2년 전 자신이 세운 기록을 0.54초 단축하며 한국신기록을 세웠다.

이어진 대만오픈국제초청육상경기대회에서는 남자 1500m 조진생 3분 52초 97, 남자 높이뛰기 조현욱 2m 12, 남자 창던지기 박용영 68m 26, 여자 원반던



◀남자 단거리 종목에서 활약한 호성원.

▶1980년대 남자 장대높이뛰기에서 라이벌 구도를 형성했던 이재복(왼쪽)과 김철균.

지기 정혜영 47m 38의 기록으로 금메달 4개를 따며 종합 3위를 했으나 한국신 기록은 나오지 않았다.

6월 제15회 KBS배육상경기대회 겸 우수선수공인기록회에서 남자 400m의 윤남한이 47초 28로 1975년 제2회 아시아육상경기선수권대회에서 구본철이 세운 한국기록 47초 29을 12년 만에 깼다. 또 남자 멀리뛰기에서 김원진이 8m 03으로 숙원의 8m 벽을 돌파하며 한국신기록을 세웠다. 이는 1981년 멕시코 주니어육상경기대회에서 김종일이 세운 7m 98을 6년 만에 경신한 것이었다. 또 남자 중장거리의 대표 선수인 유태경이 800m에서 1분 46초 93으로 1982년 뉴델리 아시아경기대회에서 김복주가 세운 1분 47초 55를 0.62초 단축했다. 유태경은 앞서 4월에 열린 제41회 전국대학대학육상경기대회 800m에서 1분 48초 2로 1위, 1500m에서 3분 50초 02로 1위를 한 바 있다.

김원진은 7월 싱가포르에서 열린 제7회 아시아육상경기선수권대회에서도 8m를 뛰어 금메달을 땀다. 이 대회 남자 세단뛰기에서 박영준이 16m 37(종전 기록 16m 35)로 한국신기록을 세우며 금메달을 땀고, 남자 높이뛰기에서 조현욱은 2m 22 한국신기록으로 은메달을 땀다. 그 밖에 여자 800m에서는 최세범



1987년 여자 1만m에서 한국신기록을 세운 김미경. 사진은 제57회 동아마라톤에서 우승을 하는 순간.

이 2분 05초 11, 임춘애가 2분 05초 39(중전기록 임춘애가 세운 2분 05초 72)로 각각 1, 3위를 하며 한국신기록을 세웠다. 여자 100m 허들 방신혜 14초 02도 한국신기록이었다. 장재근, 임춘애 등 간판 선수들의 부진 속에서도 중학생인 최세범을 포함해 10대들의 활약으로 한국은 종합 4위를 했다.

1987년은 장대높이뛰기에서 이재복과 김철균이 라이벌 구도를 형성하며 한국신기록을 연거푸 깨뜨린 것이 화제였다. 1986년까지 한국기록은 이재복이 세운 5m 12. 그러나 1987년 4월 제41회 전국대학대학육상경기대회에서 김철균

이 5m로 우승한 뒤 두 사람의 경쟁이 본격화됐다. 6월 우수선수 공인기록회에서 이재복이 5m 15를 넘으며 자신의 기록을 깨자, 9월 대학육상경기선수권대회에서 김철균이 5m 16을 넘었고, 13일 뒤인 그랑프리대회에서 이재복이 다시 5m 20을 넘으며 한국신기록을 다시 썼다.

그러나 7월 유고 자그레브에서 열린 하계 유니버시아드에서 기대했던 남자 마라톤의 김원탁, 이종희가 7,8위에 그쳐 한국 육상경기는 메달 획득에 실패했다. 7월 말 태국국제초청육상경기대회에서 한국신기록은 나오지 않았고 세단뛰기에서 박영준(16m 16)이 탄 금메달 1개 외에 남자 장대높이뛰기 이재복, 남자 창던지기 김재상, 여자 800m 최세범, 여자 100m 허들 방신혜가 탄 은메달 4개로 한국은 12개 국가 중 종합순위 5위를 했다. 아시아 육상경기에서는 중국의 독주가 계속되었다.

제1회 한국그랑프리육상경기대회 열리다

1987년 8월 29일~9월 6일 로마에서 열린 제2회 세계육상경기선수권대회에서 캐나다의 벤 존슨이 9초 83으로 남자 100m 세계신기록을 다시 썼다. 벤 존슨은 1983년 미국의 캘빈 스미스의 9초 93을 0.1초나 단축하며 9초 90의 벽을 깼다. 이는 1968년 미국의 짐 하인스가 9초 95로 10초 벽을 깬 뒤 16년 만에 이루어진 대기록이었다.

이어 9월 16일 인도 뉴델리에서 제1회 국제초청육상경기대회가 열렸다. 로마 세계육상경기선수권대회에 참가한 선수들을 초청하는 형식으로 진행된 이 대회에서 김원준이 7m 70으로 남자 멀리뛰기에서 우승했다.

1987년 10월 2일 서울 잠실주경기장에서 제1회 한국그랑프리육상경기대회가 열렸다. 22개 종목에서 120명의 선수들이 참가했는데 1988년 서울 올림픽대회를 앞두고 전지훈련 차 한국을 찾은 미국, 소련, 서독, 핀란드 등의 선수단이 번

외경기로 참가해 국제친선대회의 성격을 띠었다. 이 대회에서 남자 장대높이뛰기의 이재복이 한국신기록을 세웠고, 남자 5000m에서 백승도가 13분 50초 35로 김종윤의 기록을 1년 만에 깨고 한국신기록을 작성했다.

10월 열린 제68회 전국체육대회는 1988년 서울 올림픽대회 국가대표 평가전을 겸해 양궁에서 김수녕이 비공인세계신기록을 세우는 등 그 어느 때보다 열기가 뜨거웠다. 육상경기에서는 여자 1만m에 참가한 김미경이 33분 28초 25로 이정숙이 세운 한국기록을 1분 32초 앞당기는 데 성공했다. 김미경은 앞서 4월에 열린 서울월드컵마라톤에서 2시간 32분 40초로 최경자가 세운 한국기록을 6분 7초 단축하며 아시아 랭킹 2위에 오른 바 있고, 여자 20km 로드레이스까지 3개의 한국최고기록을 보유해 여자 장거리계의 희망이 되었다. 여자 20km 로드레이스에서 이미옥은 1시간 10분 50초(종전기록 1시간 12분 35초)로 한국신기록을 세웠고 10km에서는 정미자가 35분 20초로 1위를 한 것 외에 방경희, 정혜정, 주문자 등 4위까지가 모두 한국기록(종전기록 35분 47초)이었다.

한국 마라톤 부활의 신호탄

1987년은 한국 마라톤에 의미 있는 한 해였다. 1986년 유재성이 2시간 14분 06초로 14분대 초반을 끊으면서 기록 단축에 불을 붙인 이후 한국 마라톤은 세계와의 엄청난 기록 차를 만회하고자 노력해 왔는데 드디어 1987년 3월 15일 12분대 진입에 성공한 것이다. 잠실올림픽주경기장 앞에서 출발해 성남을 왕복하는 코스의 제58회 동아마라톤에서 이종희가 2시간 12분 21초로 1위를 했고, 2위 허의구 2시간 12분 23초, 3위 김원탁 2시간 12분 26초로 3위까지가 모두 12분대였다. 그뿐만 아니라 4위 김재룡 2시간 13분 35초, 5위 송재필 2시간 13분 41초로 5위까지가 모두 유재성의 기존 기록을 넘어섰다.

이로 인해 4월 11일 1988년 서울 올림픽대회 마라톤 코스에서 열린 제2회 서

울월드컵마라톤대회에 대한 기대도 커졌지만 결과는 실망스러웠다. 56개국 353명의 선수들이 참가한 가운데 우승은 2시간 10분 55초로 들어온 아프리카 지부티 출신 아메드 살레에게 돌아갔다. 한국 선수로는 이춘근이 2시간 16분 19초로 33위를 한 것이 최고 성적이었다고 유재성은 118위, 김양곤은 기권했다.

육상경기 한국신기록은 1985년 52개, 1986년 48개, 1987년 41개로 줄어드는 추세. 1987년 한 해 동안 남자 18개, 여자 23개 등 모두 41개의 한국신기록이 나왔다. 남자 마라톤에서 이종희가 2시간 12분 21초로 13분의 벽을 깬 것이 가장 큰 수확이었다. 이로써 한국 남자 마라톤은 2시간 10분대 진입을 바라볼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세계와의 격차(세계 1위 스페인 로페스, 2시간 7분 12초)는 여전히 과제로 남았다. 이종희의 기록은 세계 241위, 아시아 34위에 불과했다. 당시 일본은 마라톤 최고기록이 고마다 선수의 2시간 7분 35초(세계 3위)로 한국보다 4분 46초나 앞서 있었고, 세계 20위권에 드는 선수가 5명이나 돼 한국 마라톤에 비해 10년 이상 앞섰다는 평가가 나왔다.

어쨌든 1987년 한국 마라톤의 부활 신호와 함께 팀 간 경쟁에도 불이 붙었다. 코오롱은 정봉수 감독 대신 1986년 서울 아시아경기대회 5000m 우승자인 김종윤을 스카우트해 마라톤 팀을 창단했고, 제일제당이 대학 졸업을 앞둔 유재성과 송재필을 영입하고, 동양나일론은 김원탁을 스카우트 하는 등 팀마다 경쟁적으로 우수 선수 영입에 나섰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로 1988년 3월 동아마라톤 대회에서는 1~3위까지가 모두 12분대를 기록했고, 13분대 선수도 4명이나 나와 한국 마라톤의 기초가 튼튼해졌음을 보여주었다.

1987년 12월 국제육상경기연맹이 발표한 1988년 서울 올림픽대회 기준기록을 통과하는 선수는 장재근(100m, 200m), 심덕섭·성낙균(100m), 김원진·김종일(남자 멀리뛰기), 김희선(여자 높이뛰기) 등 6명이었다.

그 밖에 1987년 7월 박정기 대한육상경기연맹 회장이 임기 4년의 아시아육상경기연맹 부회장으로 선출되었다.



1988년 세단뛰기에서 한국신기록을 세운 유재균.

1988년 서울 올림픽대회를 향해 뛰다

드디어 서울 올림픽대회가 열리는 1988년이 밝았다. 역대 올림픽대회에서 한국 육상경기가 거둔 최고의 성적은 1984년 LA 올림픽대회 때 남자 멀리뛰기에 서 김종일이 8위를 한 것이 전부였다. 서울 올림픽대회에서 예선을 통과하는 육상경기 종목이 하나만 나와도 큰 수확이라고 할 만큼 기록 면에서 세계와의 격차가 컸다.

3월 태릉 실내육상경기장에서 제2회 전국실내육상경기대회가 열려 4개의 한국신기록이 나왔다. 남자 400m에서 윤남한이 48초 47(종전기록 49초 09)로 자신의 기록을 깨며 한국신기록을 작성했다. 윤남한은 남자 400m에서도 47초 28로 한국기록 보유자. 세단뛰기의 유재균은 14m 68(종전기록 14m 55, 실외 한국기록 16m 37), 여자 멀리뛰기의 박은경은 5m 98(종전기록 5m 63)로 한국신기록을 세웠고, 실내 종목만 있는 여자 60m 허들에서 방신혜가 8초 75로 종전기록을 0.12초 단축하는 데 성공했다. 방신혜는 여자 100m 허들에서 14초 02의 한국기록 보유자.

4월에는 9월 중순으로 잡혀 있는 서울 올림픽대회 기간과 겹치는 것을 피하고 사전에 선수들의 기량을 점검하기 위해 제69회 전국체육대회, 제17회 소년체육대회, 제17회 전국 중별육상경기선수권대회가 한꺼번에 열렸다. 여자



1988년 서울 올림픽대회 개막식.

100m 허들의 방신혜는 예선에서 13초 82, 결선에서 13초 80(종전기록 14초 02)으로 자신의 기록을 연거푸 경신하며 우승을 했고, 남자 1만m 경보에서 정필화가 42분 57초 58(종전기록 43분 14초 62)로 역시 자기 기록을 경신했다. 특히 방신혜는 2주 뒤 열린 제42회 전국대학육상경기선수권대회에서도 13초 63으로 다시 한국신기록을 세우며 한국 여자 허들의 여왕임을 입증했다. 또 여자 높이뛰기에서 김희선이 1m 87로 대회신기록을 세웠고, 남자 원반던지기에서는 민세훈이 50m 18로 역시 대회신기록을 세우는 데 그쳤다. 그러나 이 기간

에 나온 한국신기록은 3개에 불과해 실망도 컸다.

1988년 4월 일본 오사카에서 열린 국제친선역전경주대회에서 한국의 제일제당팀이 우승했다. 이 대회는 32.7km를 7명의 주자가 나누어 뛰는 것으로, 4개국 296개 팀이 참가했다. 한국 마라톤 최고기록 보유자인 이종희 외에 허의구, 유재성, 송재필, 이홍식, 이춘근, 윤찬기 등 한국의 대표급 선수들이 소속돼 있는 제일제당팀은 2위 일본, 3위 중국을 제치고 우승에 성공했다.

미국 전지훈련에 참가한 육상경기 선수들로부터 한국신기록 소식도 속속 전해졌다. 4월 미국 오리건 주 레인커뮤니티대학대회 남자 장대높이뛰기에서 김철균이 5m 31을 넘어 이재복이 1987년 10월 그랑프리대회에서 세운 5m 20을 경신한 것. 그러나 여기서 멈추지 않고 김철균은 7월 10일 5m 40을 기록하더니, 7월 15일 다시 5m 45로 한국신기록을 연거푸 새로 썼다. 그러나 이 기록은 이재복에 의해 깨진다. 7월 23일 이재복이 5m 46으로 한국신기록을 세운 것. 이로써 한국은 남자 장대높이뛰기에서 올림픽 기준기록(5m 45)을 통과한 선수가 2명이 되었다.

5월 제16회 KBS배 전국육상경기대회 겸 공인기록회에서 한국신기록이 나왔다. 남자 창던지기의 박종삼이 75m 86으로 종전기록을 46cm 경신한 것. 5월에 열린 대만 오픈국제초청육상경기대회에서 한국은 금메달 2, 은메달 6, 동메달 4개를 획득했다. 남자 1500m에서 김봉유가 3분 54초 62, 여자 원반던지기에서 김춘희가 46m 70으로 각각 금메달을 땀다.

6월에 열린 제42회 전국육상경기선수권대회 겸 올림픽대회 최종 선발전에서 남자 400m 허들 황홍철 51초 08, 높이뛰기 조현욱 2m 23, 400m 윤남한 47초 12, 창던지기 이육중 77m 30 등 모두 4개의 한국신기록이 작성되었다.

7월 일본 미에바시에서 한국 미국 일본 청소년친선육상경기대회가 열렸다. 여자 400m에서 박종임이 55초 99, 여자 800m에서 정영임이 2분 12초 12, 남자 1500m에서 이군진이 3분 56초 61로 각각 우승을 했다. 또 미국 오하이오 주

마라톤을 제외한 한국 여자 육상경기 첫 올림픽대회 8강 종목은 높이뛰기



여자 높이뛰기 역대 한국기록 보유자. 왼쪽부터 이옥순, 유경희, 김희선.

한국 육상경기의 올림픽대회 참가 역사상 마라톤을 제외한 종목에서 처음으로 8강에 오른 여자 선수는 높이뛰기의 김희선이다. 그의 기록에 앞서 한국 여자 높이뛰기 변천사를 간단히 살펴보면 이렇다.

1941년 9월 경기선수권대회에서 당시 이화여고생이던 정임순이 1m 43을 기록한 뒤 1948년 6월 런던 올림픽 파견 최종 선발전에서 1m 46을 넘었다. 이후 1975년 10월 전국체육대회에서 경명여고의 이옥순이 자신의 세 번째 한국기록인 1m 66을 넘었다.

2년 뒤 1977년 7월 공인기록회에서 충북은행의 유경희가 1m 70 시대를 열었다. 하지만 우리나라 높이뛰기의 기록을 세계 수준까지 끌어올린 주역은 김희선이였다. 그는 이화여대 재학 시절인 1982년 12월 뉴델리 아시아경기대회에서 1m 81을 넘었고 4년 뒤인 1986년 9월 서울 아시아경기대회에서 1m 89를 기록했다.

이어 코오롱에 입단한 김희선은 1988년 서울 올림픽대회에서 1m 92를 넘어 세계 8강에 오르는 기염을 토했다. 이후에도 그의 기록 행진은 이어져 1990년 6월 종합선수권대회에서 1m 93을 넘어 한국기록을 경신했다.



1988년 서울 올림픽대회 당시 시상 담당관이었던 강성구 씨는 육상경기 메달리스트(42개 종목 126명)의 사인을 모두 받아 보관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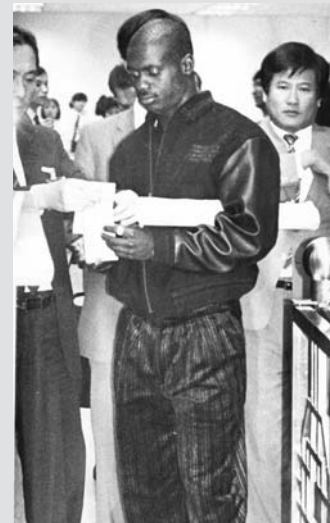
콜럼버스에서 열린 주니어 서머게임 육상경기대회에서 남자 높이뛰기의 박재홍이 2m 22로 1위를 했다. 이것은 조현욱이 6월에 세운 2m 23에 1cm 모자란 것. 조현욱과 박재홍 두 고교생 라이벌의 등장으로 한국 남자 높이뛰기는 기록 정신을 거듭했다. 8월 초 캐나다 서드베리에서 열린 제2회 세계주니어육상경기 선수권대회에서 박재홍이 2m 22를 넘어 동메달을 땀다. 이는 1985년 고베 유니버시아드대회 남자 200m에서 장재근이 은메달을 딴 데 이어 공식적인 세계 규모 대회에서 메달 획득에 성공한 두 번째 성과였다.

뒤이어 열린 제2회 한국육상경기그랑프리대회에서 2개의 한국신기록이 나왔다. 남자 높이뛰기에서 조현욱이 2m 25로 자신이 세운 종전기록 2m 23를 뛰어넘었고, 여자 100m에서 이영숙이 11초 68(종전기록 11초 70)로 한국신기록을 수립한 것. 조현욱의 라이벌인 박재홍은 2m 15에 그쳤다.

전 세계인의 축제 서울 올림픽대회와 육상경기

1988년 9월 17일 167개국 IOC 회원국 가운데 160개국 1만 3626명의 선수단이 참가한 가운데 제24회 서울 올림픽대회 막이 올랐다. 이 대회는 올림픽현장

약물검사로 금메달을 박탈당한 벤 존슨



1988년 9월 24일 서울 올림픽대회의 하이 라이트인 남자 육상경기 100m 결승경기가 열렸다. 캐나다의 벤 존슨은 속적인 미국의 칼 루이스를 제치고 9초 79의 세계신기록으로 금메달을 획득했다. 일약 서울 올림픽의 영웅으로 떠올랐고, 그는 단거리의 황제로서 영광을 누렸다. 그러나 그 영광은 오래가지 않았다. 도핑컨트롤센터가 존슨의 소변을 두 차례 검사한 결과, 모두 양성반응이 나왔다. IOC 의무분과위원회도 별도 검사를 실시했지만 결과는 마찬가지였다.

그는 근육강화제인 '아나볼릭 스테로이드'를 복용했다는 판정을 받고 사흘(정확하게 67시간) 뒤 27일 도망치듯 한국을 떠났다.⁰⁰⁶ 앞서 IOC는 존슨의 금메달을 박탈하고 2년간 국제경기대회 참가를 금지한다고 발표했다. 아나볼릭 스테로이드는 폭발적인 순발력을 필요로 하는 종목의 선수들이 주로 찾는 것이었다. 존슨 이전까지 약물 복용이 적발돼 메달을 빼앗긴 올림픽 금메달리스트는 모두 정치적으로 메달 압박을 받던 동유럽 출신들이었다.

결국 남자 육상경기 100m 금메달은 2위로 들어온 미국의 칼 루이스(9초 92)에게 돌아갔다. 루이스는 이 금메달을 포함해서 모두 9개의 금메달을 획득해 역시 미국의 육상경기 선수인 레이 어리(10개)에 이어 역대 최다 금메달 2위에 올라 있다. 이후 재기를 노리던 존슨은 1993년 또다시 약물 복용이 적발돼 세계 육상경기계에서 영구 제명당했다.

⁰⁰⁶ '올림픽에 얽힌 비화', 신동아 2000년 10월호.

에 규정된 '최다 참가'를 실현했고, 개최국 한국은 금메달 12개, 은메달 10개, 동메달 11개로 소련, 동독, 미국에 이어 메달 집계 4위에 오르는 기염을 토했다.

그러나 149개 나라 1811명의 선수가 참가한 육상경기 종목에서는 또다시 세계의 높은 벽을 실감해야 했다. 한국은 육상경기에 남자 27명, 여자 20명의 선수가 참가해, 여자 높이뛰기에서 김희선이 1m 92(종전기록 1m 90)로 한국신기록을 세우며 결선 진출에 성공(8위)한 것이 최고 성적이었다. 한국 선수가 올림픽대회 육상경기 결선에 오른 것은 1984년 LA 올림픽대회 때 남자 멀리뛰기에서 김종일이 8위를 한 것에 이어 두 번째였다. 김희선은, 남자 창던지기에서 78m 10(종전기록 77m 30)으로 한국신기록을 세운 이육종과 함께 체육기자단에 의해 1988년 남녀 최우수선수에 선정되기도 했다. 남자 4×100m 릴레이에서 한국팀은 준결선까지 진출했다. 여자 마라톤에서 이미옥이 2시간 32분 51초로 15위, 남자 마라톤에서 김원탁이 2시간 15분 44초로 18위를 했다.

육상경기 종목 가운데 기록 면에서 가장 눈에 띄는 성과를 거둔 것은 허들 종목이었다. 남자 110m 허들 김진태 14초(종전기록 14초 04), 남자 400m 허들 황홍철 50초 52(종전기록 51초 08), 여자 400m 허들 김순자 59초 78(종전기록 60초 51)이 모두 한국신기록이었다. 남자 400m 윤남한은 비록 예선에서 탈락했으나 47초 02(종전기록 47초 12)로 한국신기록을 세웠다. 육상경기에서 모두 8개의 한국신기록이 나왔으나 세계의 높은 벽에 가려 주목을 받지 못했다. 더욱이 한국은 중국, 일본과 비교해서도 기록상 크게 뒤쳐진 상태였다. 1986년 아시아경기대회와 1988년 올림픽대회를 치르면서 국민들이 육상경기의 중요성과 재미를 깨닫게 됐지만 이것이 육상경기의 진흥으로 이어지지는 못했다. 1988년 봄 대한육상경기연맹은 서울 올림픽대회를 앞두고 육상경기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재미있는 육상경기》라는 책을 펴냈다.

10월 잠실운동장에서 성남 간 코스에서 열린 제42회 조선일보마라톤대회에서 유진홍이 2시간 13분 52초로 우승하며 시즌 마지막 마라톤대회를 마무리했다.



▶ 1980년대 말, 남자 높이뛰기에서 한국기록을 경신해온 조현욱(왼쪽)과 유태경.
▶ 1989년 여자 400m에서 여러 차례 한국신기록을 작성한 박종임.

대한체육회와 대한육상경기연맹 잠실 시대 개막

1989년 2월 요미우리 국제실내육상경기대회에서 남자 높이뛰기의 조현욱이 2m 15로 2위, 남자 800m에서 유태경이 1분 58초 50으로 3위를 했다.

4월 제18회 종별육상경기선수권대회 여자 400m에서 박종임이 54초 87(종전기록 55초 08)로 한국신기록을 세우며 우승했다. 이 대회 200m에서도 박종임은 24초 75로 대회신기록을 세우며 우승했고, 이어 5월 19일 제17회 KBS배 전국육상경기대회 여고부 4×400m 릴레이에서 김미해·최세범·김은희·박종임으로 구성된 서울체고팀이 3분 46초 37(종전기록 1986년 아시아경기대회 때 국가대표팀이 세운 3분 46초 99)로 한국신기록을 작성했다. 박종임은 6월 30일에 열린 제10회 체육부장관기 시도대항육상경기대회 여자 400m에서 다시 54초 63으로 자신의 기록을 경신했다. 이로써 박종임은 한 해 동안 3차례 한국신기록을 작성하는 선수가 되었다.

6월 17일 도쿄에서 열린 제73회 일본육상경기선수권대회에서 여자 높이뛰기의 간판스타 김희선이 1m 90으로 우승했고, 8월 싱가포르 오픈국제육상경기선수권대회에서 여자 400m의 박종임이 54초 2(종전기록 수동계시 55초 7, 전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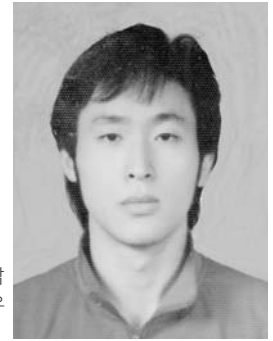


☞ 1988년 서울 올림픽대회 100m 달리기 예선에서 9초 99로 여유 있게 들어오는 칼 루이스 선수. 최종 결선에서 2위를 했으나 1위인 벤 존슨 선수가 약물 복용으로 금메달을 박탈당하면서 9초 92로 들어온 칼 루이스 선수가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계시 54초 63)로 한국신기록을 세웠다. 여자 멀리뛰기의 임숙현도 우승했으나 기록 경신에는 실패했다.

8월 27일 일본 삿포로 국제육상경기대회 200m 장재근이 21초 27로 우승했으나 자신의 최고 기록에는 미치지 못했다. 또 8월 말 독일 뒤스부르크에서 열린 유니버시아드대회 최종 순위 집계 결과 한국은 여자 마라톤에서 김연구가 2시간 40분 52초의 기록으로 동메달을 따는 데 성공했으나 한국은 종합 27위에 그쳤다. 김연구는 1985년 장재근이 200m에서 동메달을 딴 이래 유니버시아드대회 참가 역사상 육상경기 부문에서 두 번째로 한국에 메달을 안겨주었다.

9월 제70회 전국체육대회 여자 100m에서 24세의 이영숙이 11초 67(종전기록 11초 68)로 1년 만에 한국신기록을 경신했다. 여자 창던지기에서 이정자가 55m 12(종전기록 53m 56), 여자 5000m 경보에서 박현주가 24분 37초 59초



☞ 1989년 아시아육상경기선수권대회 남자 400m 허들에서 한국신기록을 세우며 우승한 황홍철.

(종전기록 24분 47초 90), 남자 포환던지기에서 유혁이 15m 94(종전기록 16m 71)로 모두 4개의 한국신기록이 나왔다. 특히 이정자는 1989년 한 해 동안 52m 28에서 53m 56, 55m 12로 빠른 기록 향상을 보여줘 1990년 베이징 올림픽대회 메달 획득에 대한 기대를 높였다. 또 1989년에는 전국체육대회와 동시에 20개국 300여 명의 해외동포가 참가하는 제1회 세계한민족체육대회가 열려 체육계에 더욱 뜻 깊은 한해였다.

11월 뉴델리에서 열린 제8회 아시아육상경기선수권대회에서는 남자 400m 허들에서 황홍철이 50초 29(종전기록 50초 52)로 한국신기록을 세우며 우승했고, 남자 높이뛰기의 조현욱이 2m 17로 자신의 최고기록에 8cm 못 미쳤으나 한국 선수로는 최초로 아시아육상경기선수권대회 높이뛰기에서 금메달 획득에 성공했다. 한국은 이 대회에서 종합 4위를 했다. 조현욱은 이어 태국 국제초청육상경기대회에서도 금메달을 땀으나 신기록 작성에는 실패했다. 또 이 대회에서 멀리뛰기의 김원진이 7m 83으로 금메달을 목에 걸었으나 역시 자신의 최고 기록에 20cm나 못 미치는 저조한 기록이었다.

1989년 12월 대한체육회는 23년의 서울 무교동 시대를 끝내고 송파구 잠실에 있는 올림픽회관으로 자리를 옮겼다. 대한육상경기연맹은 석 달 뒤인 1989년 3월 29일 잠실 종합운동장으로 이전했다.